

아름다운재단 2012 나눔가계부
The Beautiful Foundation 2012 Annual Report

나눔으로
함께하는
가정



아름다운재단의 2012년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큰 변화의 기간이었으며 시련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아름다운재단에 몸담았던 분들의 정계진출 여파로 저희에게 휘몰아친 정치공세는 '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허나 수많은 기부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알찬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2003년부터 활동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홀로서기에 나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공감'은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비추는 더욱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12년 한 해도 소중한 기부금으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임과 동시에 시민과 공익을 이어주는 바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폭서기 열악한 주거환경에 기인한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무)더위 캠페인'으로 풀어냈고, 이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사회적 여론 환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개인, 단체, 모임 누구든 공익적 아이디어를 시민에게 직접 소개하고 후원자를 모을 수 있는 '소셜펀딩 개미스폰서'사업 또한 공익과 시민이 만나는 장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고, 풀뿌리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작은 단체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교육과 연구사업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으로 토크콘서트 '여우와 장미'는 청소년들이 직접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스로 가치를 깨달아나가는 미래지향적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또 비영리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외에도 이혼증이의 치료와 그 가족을 돕는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와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희망가게'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기부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랫동안 아름다운재단을 이끌어 오신 박상중 초대이사장과 윤정숙 상임이사가 퇴임했습니다. 뒤를 이은 김미경 사무총장과 저는 간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제 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예종석



아름다운재단의 지향과 가치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끌어 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사회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8월에 설립하였습니다.

미션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전

행동하는 시민 기부문화의 확산자

나눔은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행하는 기부자들의 가장 성실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모델 인큐베이팅

공익활동은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사회 전체의 패턴을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신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핵심가치

투명성

아름다운재단은 설립 때부터 국내 최초로 비영리단체의 회계에 '투명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재단의 운영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행, 정례적인 기금 보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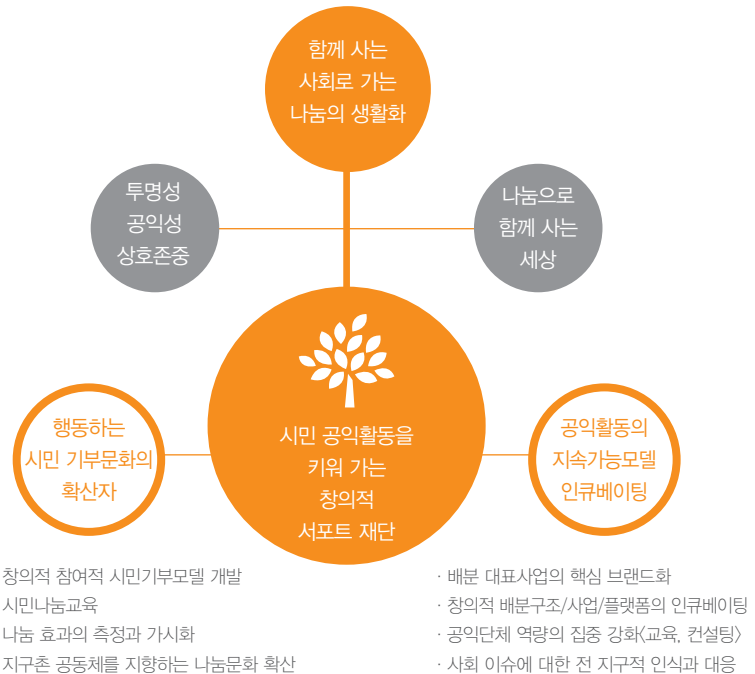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공익성

아름다운재단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문제의 근본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공익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민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1%나눔 캠페인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며,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공익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상호존중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회의 가치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삶의 연대기를 고려한 다양한 기부 방법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부 방법을 안내하고, 도움 받는 이에게는 지원금품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운영원칙

아름다운재단은 사람과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운영

아름다운재단은 기업재단이나 가족재단과 달리 특정회사나 특정개인이 아니라 수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을 운영하는 이사회 역시 기업관계자, 학계, NGO·NPO(엔지오·엔피오) 지도자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우리사회 다양한 시각이 재단 운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회의 신뢰와 지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재단은 시민과 공동체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내어놓은 기부금으로 기금이 마련되고 운영되기에 우리사회와 수많은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사회를 위한 혜택

아름다운재단의 이익은 모두 우리사회와 시민들의 이익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은 우리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며,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쓰여집니다. 또한 지역재단의 자산의 이익도 역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해야합니다.

공정성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오로지 우리사회의 공익과 공동의 선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은 항상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투명성

재정, 사업, 운영의 모든 내용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부자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한 기부자의 소중한 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름다운재단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부자들과 지역사회에 낱알이 공개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살림살이도 더 이상 보여드릴 것이 없을 만큼 모두 공개합니다. 시민과 사회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재단,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전문성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합니다.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사회복지와 NGO 분야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사들이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대가도 없이 참여하며,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제대로 된 사업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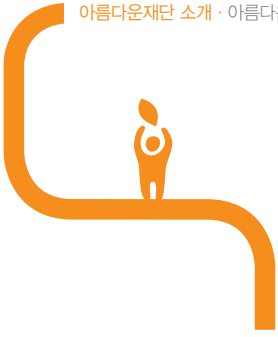
우리사회와 기부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도 시민단체지원재단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모든 재단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소외와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영역을 갖는 많은 기금들을 조성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온정적 자선을 뛰어넘는 나눔문화운동을 실천하며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공익재단입니다.

대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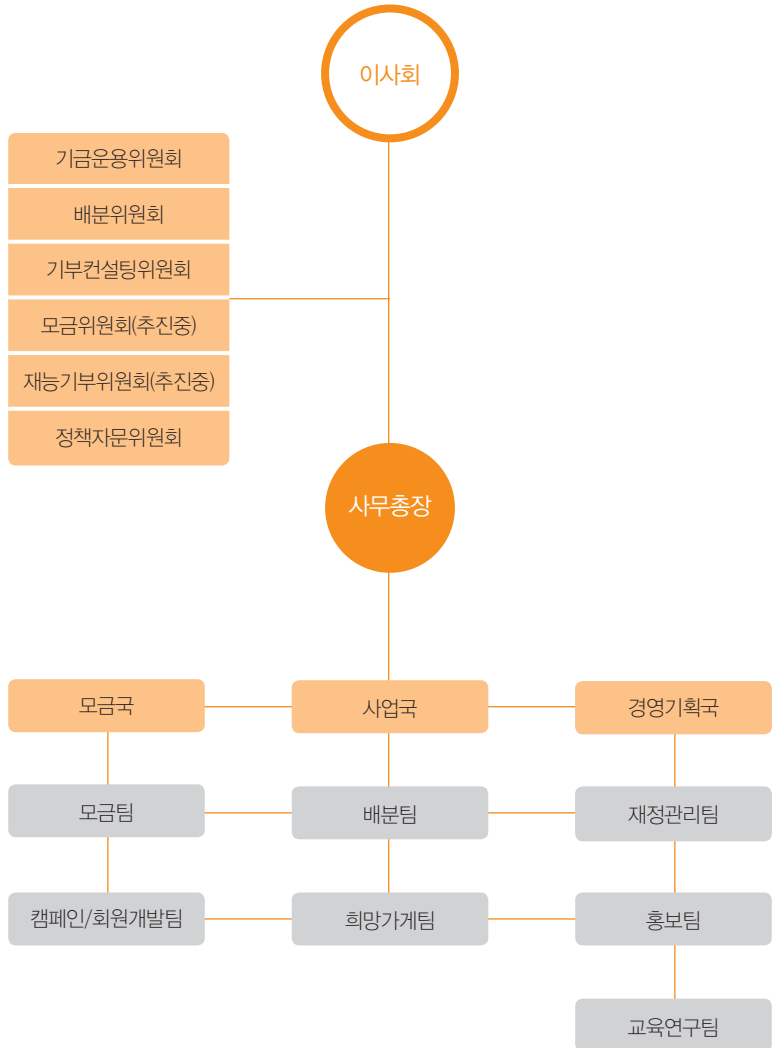
특정인사, 특정단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성원 모두가 주인인 재단입니다.

한 사람의 큰 돈이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재단입니다. 그렇기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소박한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재단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열 사람이 한 길로, 함께 걷는 한 걸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나눔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입니다.





한눈에 보는 2012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의 새로운 출발



2012년은 변화를 모색한 한 해였습니다. 창립부터 아름다운재단의 대표자로 함께한 박상증 전 이사장이 퇴임하고, 오랫동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를 이끈 한양대학교 예종석 교수가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또한 언론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김미경 이사가 사무총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변호사, 크로스포인트의 손혜원 대표, 미디어월 그룹의 주원석 회장, 금강(주)의 신용호 대표가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주)안트로젠 정준희 재무담당이사도 감사로 새로 합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지홍 교수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재단의 자산운용정책을 이끌게 되었고,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장 원윤희 교수가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여 한국사회의 기부문화 연구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2년간의 활동경험과 역량 그리고 기부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임직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더해 우리사회 기부문화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 및 시민 공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큐베이팅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나눔을 통한 물질 지원과 더불어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와 관련법 제·개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04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합류한 젊은 변호사들은 외부의 수입료는 일체 받지 않고 여성, 장애,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들을 위해 법률 활동을 펼쳤습니다. 변호사 1인에서 시작해 지금은 변호사 7명과 실무간사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은 권력과 부유층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업 변호사'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1%나눔 참여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제 8년의 활동을 거쳐 2012년 12월 1일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독립하여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활용과 순환의 나눔문화를 만드는 아름다운가게, 인터넷 기부포털 해피빈과 같이 전문화되고 독립사업의 역량을 갖춘 사업은 독립 법인화하는 인큐베이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시민들과 다양한 주제와 이슈로 호흡하는 공익활동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름다운재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자매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아름다운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자 여러분께서도 자매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www.kpil.org)에 많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최초로 ‘민간 공익 재단’의 총 개수, 규모, 사업 영역과 관련 법제도의 역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가량의 중소 민간 공익재단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장학재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를 진행하여 ‘기부금품법 개선’,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선’ 및 ‘기부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제도검토사항’의 세 가지 법률개정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연구회’가 결성되어 민간의 현실을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2013년 중 청원과 국회의원 발의의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8~10월 두 달간 비영리단체 활동가 2명을 대상으로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11년 진행된 아름다운재단의 온라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과 전문가 그룹의 풍부한 노하우를 더 많은 단체들과 나누고, 단체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사이버대학교 광동수 교수, 이노레드 박재우 부장, 슬로워크 임의균 대표, 아이디어브릭스 김대현 팀장 등의 강사진이 강의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심도 깊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우와 장미



성적위주의 서열주의, 왕따, 자살충동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소년 나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어린왕자인 청소년들에게 광고인 박용현, 배우 이문식 님이 멘토, 즉 ‘여우’가 되어주었습니다. 중고 학용품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HOPEN(호펜)’의 임주원 대표,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을 나누며 토론하는 인디고서원 ‘정세청세(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의 이상 학생, 지리산을 중추하며 모은 3천여만 원으로 ‘막무가내대장부기금’을 조성한 두레학교의 서인성 학생이 직접 연사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알리고 나눔을 통한 지지, 공감,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이슈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진행된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은 ‘가난해서 차별받고 차별받아서 가난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포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에 지지와 공감을 보내는 역발상적 참여 캠페인입니다. 1천 명이 넘는 기부자가 함께해 8개 기금에 4천7백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진행된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 2’ 캠페인에서 ‘양육시설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급식비 예산부족 문제를 제기해 지원하고 정부의 예산 인상이라는 제도개선도 이끌었습니다.

시민 스스로 막강한 재미군단이 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공익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를 정식 런칭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54개의 프로젝트가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를 통해 소개되었고 1,635명의 기부자가 1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는 공익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단체, 모임, 시민과 나눔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나눔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누군가는 도전하고 싹을 틔웁니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작은 도전들이 지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나눔의 스폰서'가 되어주십시오.

개미스폰서



기부자가 특별한 영역이나 사업,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지만, 이 사업이 아름다운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규 지원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사업과 지원 단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부자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은 물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체를 발굴하여 연결하고 지원합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범죄피해자 가족 지원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무더위 및 겨울나기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 등을 연계했습니다. 현물을 포함하여 총 3억5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단체, 아동, 어르신에게 전달됐습니다.

나눔 증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속가능한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공익활동을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새롭게 바꾸고 보완한 '변화의 시나리오'는 공익단체의 활동과 활동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에 2012년 한 해 동안 11개 지원사업을 통해 125단체가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의로운 시나리오, 마음 다친 이웃을 위한 위로의 시나리오, 이웃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풀뿌리 시나리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도전의 시나리오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에서는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평가하고 정리하여 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직접 진행한 아동양육시설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협약을 맺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희망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업을 유지하고 대학졸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했으며, 시설 퇴소 학생들의 자립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여행지원사업을 함께한 트래블러스맵도 협력단체로 전환해 기존 사업에서 부족한 지원단체들에 대한 여행컨설팅, 멘토, 인프라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꿈꾸는 다음세대





당신이 아름다운재단의 시작입니다

저희 애기 돌잔치 끝나고 좋은 곳에 쓰일 소정의 돈을 기부합니다. 두 돌 때도 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적은 돈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보장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희망의 손길로, 지금까지 투명하게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빈곤1%기금

보너스를 받았는데, 문득 아름다운재단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뜻깊게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공익인프라1%기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아직 11개월에 비정규직입니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 생활에서 이 정도는 감당이 된다 하는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1%는 넘는 금액이구요.^^ 처음 시작은 작지만 저도 발전하고 재단도 발전해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기금

재작년 친구들과 '조만간 직립보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탈북자 친구들이 여행 끝나고 자기들이 저금통에 모은 돈을 들고 왔는데 정말 뜨끔이랄까 우와 심기도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여 하나둘씩 모으게 됐어요. 이렇게 모은 동전 이제야 기부합니다. 좋은 곳에 써주세요.^^

1%기금

지난 스승의 날에 올해 졸업한 제자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디. 제가 좋아하는 곡차와 함께 상품권이 담겨 있더군요. 제 교직생활 12년에 제자에게서 처음으로 받은 상품권 선물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중 기부가 제자의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야독기금

필승! 대한민국 공공 병장 황선민입니다! 책을 읽다가 우연히 결식아동 후원에 대한 팸플릿을 보고 감명을 받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희망제작소에 제 월급 8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으로써

터 받은 이 봉급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 총동 기부(?)로 한동안 PX(피엑스)도 못 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군생활로 인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시민연구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군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병장 달면 월급이 십만 원이 넘으니깐 오른 만큼 그것도 기부하지는 저와의 약속을 병장이 된 지금, 실천하고 싶습니다. 만 원, 작은 돈 기부하고 생색내는 것 같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만 원은 1%나눔이 아니라 10% 나눔입니다.^^ 이 돈 부디 제 군생활이 헛되지 않게 소중한 곳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기금**

결혼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효리기금과 더불어 사회 소수약자에게 기부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기부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되어 오히려 고맙습니다. **빈곤1%기금**

초롱, 우리가 드디어 부부가 됐어. ^^, 설렘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순간,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앞으로 싸울 일도 많고, 서로 실망도 하겠지만, 이 순간을 꼭 기억하자고, 당신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초롱, 사랑해~ **1%기금**

회원 손00(장애아동 보조기 구매지원?)의 동생입니다. 오빠는 미숙아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장애3급으로, 수년째 행정인턴을 하며, 말 없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학생으로 기부금이 적어 부끄럽습니다. **1%기금**

아버지께서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쯤, 예약된 병원 진료가 있었는데, 그 진료를 취소하면서 진료예치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그 돈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쓰인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부합니다. **빈곤1%기금**

우리 애들 생일이면 항상 하던 기부가 올해는 넘겨 버렸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도 애들이 잊지 않고 있네요. 아빠가 되어 약속을 잊어버려 부끄럽습니다. 이번엔 큰아이와 작은아이 몫을 한꺼번에 합니다. **솔기금**

더불어 사는 사회

1,852,619,000

기업시민
23+α명

100,218,099

소셜펀딩 개미스폰서
25+1635명

아름다운재단의 새기금

243,407,880

달팽이기금

효리기금

곽현근·최병순
추모기금

정인파트너스의꿈기금

나눔천사를위한이창식기금

LSG(엘에스지)하늘사랑기금

꿈꾸는대학로기금

이상호 님

윤도현 님

이적 님

김미화 님

김미경 님

구본창 님

이호리 님

김제동 님

無(무)더위 캠페인

5,887명 99,174,726

생애 첫 번째 나눔

87명 31,025,510

나는 반대합니다

8+1007명 47,611,379

아름다운재단 모금

8,013,693,855원

기금 185개 · 기부자 22,482명

아름다운재단 새기금

달팽이기금



- 기금조성자 이적
-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장 주거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1월 13일
- 기금 분류 일반 기금
- 출연금 1억 원

2004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정기기부자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수 이적 님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1년 12월 1억원을 기부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2013년 1월에 '달팽이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달팽이'란 기금 이름은 이적 님의 대표곡에서 따온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길을 꾸준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실질적 소년소녀가장이 주거라는 기초적이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 사업이 집을 등에 지고 가는 달팽이의 이미지와 어울립니다. '달팽이기금'은 기금 출연자의 뜻과 마음을 담아,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가 꾸준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효리기금



- 기금조성자 이효리
- 지원 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난방비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2월 8일
- 기금 분류 일반 기금
- 출연금 1억 원

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고자 하는 이효리 님이 '효리(孝利)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명인 '효리(孝利)'는 이효리 님의 이름과 한자에서 가져온 것으로 효(孝)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이로운(利)을 보태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인 김제동 님의 소개로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이효리 님은 2011년 말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홀몸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연탄 배달과 방풍지 설치 등의 자원봉사를 팬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 미처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계속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소감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지원과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 지원 이전에도 유기동물, 빈곤국가 아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팬들과 함께 진행한 이효리 님은 스타가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팬들과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효리(孝利)기금'은 기금 출연자 및 함께 참여하는 기부자의 뜻과 마음을 담아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에 온기를 전하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곽현근 · 최병순 추모기금



- 기금조성자 곽인찬, 조경희 부부
- 지원 사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2월 9일
- 기금 분류 추모기금
- 출연금 1천만 원

곽인찬 님과 조경희 님 부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자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곽현근최병순추모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11년 10월 작고하신 아버님은 생전에 화창 후 납골묘를 쓰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운 마음을 달래고자 추억하며 모실 자리로 추모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만나 "데레사, 야고보"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모님을 기리는 추모기금으로 살아생전의 삶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많은 이들의 소중한 부조금으로 마련하였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지원합니다.

- **기금조성자** (주)정인파트너스
- **지원 사업** 아름다운재단 운영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2월 28일
- **기금 분류** 사회공헌기금
- **출연금** 1천만 원

(주)정인파트너스는 아름다운재단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뜻 깊은 나눔의 방법을 더욱 활발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돕는 '정인파트너스의꿈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정인파트너스의 꿈기금



- **기금조성자** 이창식선생을추모하는모임
- **지원 사업**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4월 3일
- **기금 분류** 추모기금
- **출연금** 4백만 원

故(고)이창식 님은 강원도 영월군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30여 년 전인 중학교 때 상경하여 친구의 권유로 구둑방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단한 삶을 잊기 위해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신세를 진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어느 날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리어카를 끌면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우며 살자는 어머니의 권유로 2001년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부를 시작하였고 정기후원계좌만 5개가 넘습니다.故이창식 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매월 수입의 1%을 떼어 꾸준히 기부하고 나눔을 권유하시다 2012년 2월 20일 갑작스레 심장질환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창식선생을추모하는모임을 주축으로 그의 삶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눔 운동에 헌신하는 시민과 그 가족을 위해 추모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나눔천사를 위한 이창식기금



- **기금조성자** LSG스카이세프코리아
-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장주거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7월 9일
- **기금 분류** 사회공헌기금
- **출연금** 1천만 원

LSG(엘에스지)스카이세프코리아는 세계 최대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LSG스카이세프의 한국 법인입니다. LSG스카이세프코리아는 소비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 정기적인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내 바자회 진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소년소녀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게 될 LSG하늘사랑기금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활발하지 못한 외국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마중물이 되길 희망합니다.

LSG 하늘사랑기금



- **기금조성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지원 사업** 저소득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기금조성일** 2012년 8월 28일
- **기금 분류** 사회공헌기금
- **출연금** 꿈꾸는 대학로 강연비 기부

'꿈꾸는대학로기금'은 매주 화요일 저녁 방송대학TV(티비)에서 방영하는 <꿈꾸는 대학로>란 프로그램 출연자의 자발적인 출연료 기부와 관객의 기부로 적립됩니다. '재능 나눔 콘서트'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방송대학TV의 <꿈꾸는 대학로>는 매주 사회저명인사들이 꿈을 주제로 강연하고 전문 공연자의 공연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연자와 관객이 더불어 기부로 참여하는 최초의 재능 나눔 기부 방송입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강연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되새길 수 있게 됨은 물론, 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의 꿈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배움에 목마른 수많은 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의 확대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꿈꾸는 대학로>를 기획하고, 나아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그동안 일시적,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강연 기부, 재능 기부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되는 좀 더 발전된 사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재능 나눔 문화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꿈꾸는 대학로기금



지도와 사진으로 돌아보는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

<나는 반대합니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처하는 현실에 반대하여 우리 사회의 현 상황과 개선 지점을 고민하는 캠페인입니다. 2011년 11월에 시작해 석 달 동안 진행되었고 2012년 6월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1천여 명의 기부자님께서 일시 또는 정기로 총 47,611,379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재단을 새로이 알고 기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무려 7백 명에 이르러 귀한 새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해 기꺼이 참여한 유명 인사들이 각각 본인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부자가 1백 명 이상일 경우 “나는 00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여덟 가지 반대와 공약을 되짚어 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 참여 유명인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미화 님, 이상호 님,
 이효리 님, 이적 님,
 구본창 님, 김제동 님,
 윤도현 님, 김미경 님

먼저 이렇게 함께해주신 기부자님들의 거주지가 궁금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각종 SNS(에스엔에스)를 통해 퍼진 캠페인이니만큼 전국구가 아닐까~ 하는 짐작으로 찾아다니니, 바로 오른쪽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주소를 남긴 분만 구성이 가능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님의 마음에 답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은 약속했던 대로 서울, 경기권에서 기부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지만 서울, 경기권에서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터라 진행을 하는 처지에서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떨칠 수 없으셨던지 멀리서도 행사에 참석하신 기부자님들도 많았습니다. 함께해주신 그 마음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기부자 분포도



각지에서 개최된 행사지도

왼쪽의 지도에서와 같이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겨울 12월부터 시작해 꽃피는 봄을 지나 초여름 등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착순 행사일 때는 순위에 들지 못한 기부자님들께 불참 공지를 해드려야 해서 가슴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기부자님의 메일과 전화. 이번에 만나 뵙지 못해도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시간 때문에, 거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기부자님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1번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1. 이상호 님

- 나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무관심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공익제보자 지원(소금창고기금)
- 기부자 82명 참여 / 4,475,000원 모금
- 약속 : 2011년 12월 2일 / 2011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식 초청(안국동 해빛)

2. 윤도현 님

- 나는 가난 때문에 어린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이룬동이 지원(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 기부자 187명 참여 / 6,011,920원 모금
- 약속 : 2011년 12월 30일 / 'YB(와이비)2011 콘서트 통하다' 초청(올림픽경기장)

3. 이적 님

- 나는 어린 학생들이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달팽이기금)
- 기부자 184명 참여 / 17,041,300원 모금
- 약속 : 2012년 2월 10일 / '소박한 밥상' 식사 초대(경북공역 일식집 소도)

4. 김미화 님

- 나는 엄마와 아이가 헤어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아름다운세상만들기기금)
- 기부자 129명 참여 / 4,363,061원 모금
- 약속 : 2012년 2월 16일 / '티타임 데이트'(팔판동 달콤한네손 매장)

5. 김미경 님

- 나는 가난이 훗쳐간 미래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실직가정 대학생등록금 지원(김미경의파랑새기금)
- 기부자 45명 참여 / 2,320,000원 모금

- 약속 : 2012년 2월 27일 / '파랑새 특강' 초청(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6. 구분창 님

- 나는 책 한 권이 사치인 이주민들의 현실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국내거주 이주민 모국어 책 지원(책날개를단아시아기금)
- 기부자 51명 참여 / 2,456,460원 모금
- 약속 : 2012년 4월 29일 / 작가님 작업실 초청(경기도 성남 작업실)

7. 이효리 님

- 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끝없는 겨울에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효리孝心기금)
- 기부자 134명 참여 / 2,948,500원 모금
- 약속 : 2012년 5월 1일 / 음악 프로그램 '유&(앤드)아이' 초청(서울방송 등촌동 공개홀)

8. 김제동 님

- 나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점이 다른 것에 격하게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지원(환상의짜깁기금)
- 기부자 167명 참여 / 7,995,138원 모금
- 약속 : 2012년 6월 9일 / 북한산 등반(북한산 구기매표소~사모바위)

이렇게 7개월간의 캠페인은 많은 추억과 따뜻한 향기를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월 정기기부를 해 주시는 기부자님의 기부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사업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쓰일 것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은 '무얼 반대한다는 말이야?'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문구를 좀 더 들여다보아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시구대로 우리 캠페인도 자세히 오래 보아야 예쁜 데 알아봐 주시고 공감해 주신 기부자님, 참 감사합니다.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부에 동참해 주신 기부자님의 온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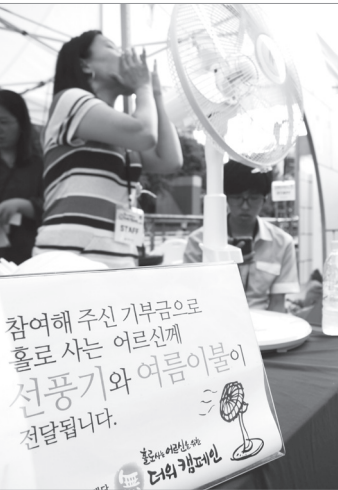
우리의 '반대'는 계속되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 | 성혜경 간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더위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무)더위 캠페인'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알리고 5천9백여 명이 참여하여 마련한 9천9백여만 원으로 어르신 2,750분께 여름이불과 선풍기를 전달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평균 나이는 73.4세, 이들이 거주하는 방의 평균 크기는 1.5평, 선풍기는 고사하고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쪽방의 기온은 여름철이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름철 권고치보다 최소 5℃가 높습니다. 도시에서는 기온이 1℃만 올라도 사망률은 16.3% 증가합니다. 폭염은 열사병을 부르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체온 조절 기능까지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몸이 상하는 것은 물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폭염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지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은 무더위만큼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 요인입니다. 고령, 질병과 장애, 빈곤, 열악한 주거시설이라는 악조건에 폭염까지 겹쳐 초래되는 사망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無(무)더위 캠페인'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알리고 5천9백여 명이 참여하여 마련한 9천9백여만 원으로 어르신 2,750분께 여름이불과 선풍기를 전달했습니다. 2012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5,889,675명이고, 홀로 사는 분은 1,111,385명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 접촉 수준 등이 열악하여 사회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어르신은 191,158명입니다. 함께하는 방법을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이니 시원해졌습니다

〈無(무)더위캠페인〉을 시작하며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스타트!

시작할 때에는 정말이지 '5천만 원을 모금해 1천5백여 명의 어르신들께 이불과 선풍기를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처음으로 진행하는 여름나기 캠페인인데 목표 금액이 너무 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 졸이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관건은 바로, 모금과 동시에 지원사업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캠페인 종료를 8월 31일로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히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늦어도 8월 초순경에는 물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제때 지원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기에 지원 사업도 모금과 동시에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물품 지원은 물론이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여름을 나아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궁극적 목적은 정말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으로도 경제적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누군가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급히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제기에 화답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따뜻한 안부인사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고현우 기부자님 : 이렇게 더운 날에 좁은 방에서 더위와 싸우고 계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여름 나실 수 있도록 조금 보태봅니다. 건강하세요.

김영아 기부자님 : 에어컨을 틀어도 덥다고 아우성들인데 선풍기 하나 없이 얼마나 더우실까요. 작지만 성의껏 동참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연 기부자님 :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끈질기게(?) 올라오는 아름다운재단 캠페인을 며칠간 보다보니 도저히 혼자서만 시원한 바람을 누릴 염치가 없네요.^^ 제가 누리는 시원한 바람을 어르신 한 분에게라도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정창훈 기부자님 : 어르신! 얼굴은 못 보었지만 저희가 다 아들딸들이에요. 힘내세요.

최수지 기부자님 : 저희 외할머니가 여름날 시골 마당에서 쓰러지셔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고, 결국 돌아가신 것도 뜨거웠던 8월 여름. 1년이 다 되어가네요. 홀로 살고 계신 그분들도 우리 부모님들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하세요!!

이형명 기부자님 : 한 번도 직접 에어컨을 켜신 적이 없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올여름은 참 덥다 하시며 가끔 전원버튼을 누르시더군요. 문득 쪽방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올해 더 많이 힘들고 덥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기부금이 적어 죄송해요. 올여름 꼭 건강히 이겨내세요!

이지윤 기부자님 : 더위와 높은 습도,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여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이 작은 마음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해야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캠페인 감사합니다.

장은석 기부자님 : 미약한 힘들이 모여서 올 여름, 많은 어르신들이 더위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시원한 여름 되세요!

그리고 이어진 청계광장에서 기부자님들과의 만남!

7월 30일(월)~8월 2일(목) 이렇게 4일간 청계광장 소라상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행사 바로 앞 주만 하더라도 햇볕이 짹짹하더니 행사 첫날 오전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그날 오후부터는 4일 내내 일사병주의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오가는 정말 굉장한 날씨였습니다. 날씨도 날씨였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날씨인데도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 부스를 보고 반가워하시던,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셨다는 기부자님들의 그 마음입니다.



무더위 캠페인을 무색케 했던 비오는 첫날의 당혹스러운 풍경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에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모금함을 펄펄 끓여오르게 했던 손길 기부도 하고, 부채도 만들고! 맘을 뽀뽀 흘리면서도 '내 부채'를 직접 만들던 기부자들의 모습



10초 초상화 장재민 작가 / 초상화 박재동 화백 / 캐리커처 장차현실 작가

그렇게 폭염의 한복판을 한참 달려갈 즈음, 한류스타로 맹활약 중인 김현중 님의 팬클럽 '김현중 파워풀(S(에스), 마이클럽)'에서 청계광장 행사부스에 방문해서 1천만 원을 선뜻 기부해 주셨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김현중 님이 직접 3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현중 팬클럽의 큰 뜻에 화답하는 스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더 멋져 보인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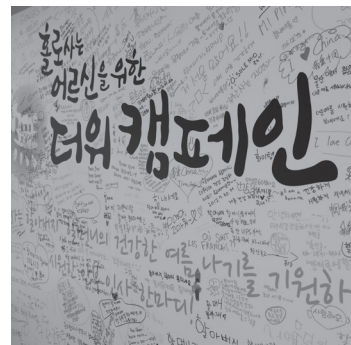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목표치의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모두 더했을 때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2차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1차 지원 이후, 협력 단체인 노인복지관협회와 회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더랬지요.

“초기에 논의했던 5천만 원보다 더 모금될 것 같아서 2차 배분을 급히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체 없이 바로 어르신들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게 가능할런지요?”

돌아온 답은,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여전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규모가 큰 추가 지원도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캠페인을 진행한 담당자로서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2차 지원도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빼곡~히 남겨주신 훈훈한 포토월!

서!!! 지난 7월 18일에 시작한 <無더위캠페인>은 딱 한 달을 채우고 8월 17일에 종료 되었습니다.

5천9백여 명(온라인 홈페이지 기부 320여 명 / 청계광장 행사 기부 200여 명 / 해피빈 기부 5,380여 명)의 캠페인 참여자께서 정성껏 마련해 주신 9천9백여만 원의 기부금으로 2,750여 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여름이불과 선풍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 여름나기 캠페인은 1차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당장 마주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풀어나가는 형식이었는데, 다음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되 여전히 손쉽고 즐겁게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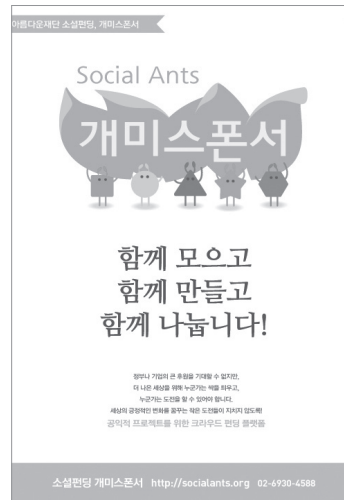
글 | 성혜경 간사

소셜펀딩 개미스폰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공익 프로젝트는 시민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를 정식 런칭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54개의 프로젝트가 '개미스폰서'를 통해 소개되었고 1,635명의 기부자가 1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기부 프로젝트, 난민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등 25개의 프로젝트가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모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 활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작고도 단단한 변화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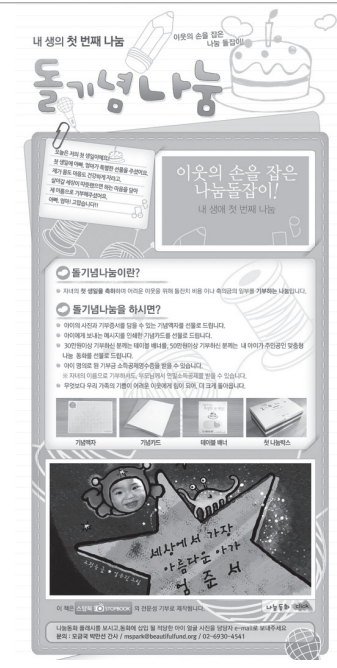
불편함과 불합리함에 참견하는 일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누군가는 도전하고 싹을 틔워야 합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꿈꾸는 작은 도전들이 지지치 않도록 시민들이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개미스폰서'는 공익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단체, 모임, 시민과 나눔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나눔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생애 첫 번째 나눔

귀한 아이의 첫 생일을 나눔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도 의미 있는 날로 만드는 가족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탄생을 기뻐하고 성장을 감사하며 함께하는 돌기념나눔은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돌기념나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홈페이지(www.specialgive.org)를 따로 만들고 홍보리플릿과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87명의 아이들이 첫 생일을 특별히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나눔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뜻 깊은 선물이 될 뿐 아니라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돌기념 나눔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고정욱 글작가, 엄유진 그림작가, 스타트업, 장채윤 디자이너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성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돌기념 나눔동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돌기념 나눔동화’는 내 생의 첫 번째 나눔. ‘돌기념나눔’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돌잔치 비용이나 축하금의 일부를 기부하시면 아이의 첫 나눔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맞춤형 나눔동화’를 선물로 드립니다.

‘돌기념 나눔동화’는 고정욱 작가님, 엄유진 그림 작가님이 전문성을 기부하여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사이에서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고정욱 작가님의 기부동기.



빠를수록 좋다!

돌기념나눔을 처음 접하고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남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습관은 일찍 기질수록 오래가며 공고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첫 해부터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일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다는데 어찌 거절을 하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 아기의 평생기부의 첫 단추를 꿰어주게 되어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영국에서 다수의 그림 동화책을 출간한 일러스트레이터 엄유진 작가님의 기부동기.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됨을 깨달을 때, ‘나눔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운 사람이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할 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만난 후 첫 생일을 의미 있는 나눔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동화책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제가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기억이 된다면 더없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여겨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 등을 통하여 앞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활성화되기 바랍니다.

글 | 박만선 간사



기업시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고레델

유아용품 전문회사인 고레델은 2011년부터 기부 이벤트와 바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의 이룬동이 지원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3월 롯데닷컴과 함께한 '행복나눔 이벤트'와 12월 연말 나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과 유모차 30대를 저소득 이룬동이 가족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인랩

인랩은 2005년부터 '아름다운 일터 캠페인'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급여나눔을 합니다. 이들의 나눔은 '혼자만잘살면무슨재민겨기금'으로 소외지역 및 이주민에 도서를 지원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사내 행사에서 상금을 받은 임직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진행한 '무더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에버그린모바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에버그린모바일은 2012년 2월 아름다운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사의 통신 요금 상품인 제로200과 스마트제로28 요금제가 판매될 때마다 판매금액의 5%를 적립하여 기부합니다.

(주)주도로지스

퀵서비스업체인 (주)주도로지스는 기부에 동의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이 서비스 1건을 완료할 때마다 100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매월 일정액을 더하여 아름다운재단 미래세대 지원 사업을 위해 기부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80여 분의 기사님들의 정성이 모여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준영무역

2007년부터 꾸준히 나눔에 함께한 준영무역은 2012년에는 그 참여 내용과 규모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무더위 캠페인'에 참여했고 12월에는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준영무역과 대표님이 함께 총 5천여만 원을 기부하여 두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소아한의원

2008년 저서의 인세를 전액 기부하며 먼저 원장님이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한 달간 함소아한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선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자의 이름으로 이룬동이 지원사업에 기부했고 각 네트워크 병원에 아름다운재단의 돌기년 1%나눔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의 확산에 함께합니다.

현대너물

현대(에이치)물은 2012년 12월 협력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나눔 이벤트 '엔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직접 양육시설을 방문하여 물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제너두

복리후생 전문기업인 e(i)-제너두는 2006년부터 자사에서 운영 중인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 사이트인 Benecafe(베네카페)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e-제너두 회원사의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Benecafe를 통해 기부하면 e-제너두에서는 이를 적립하고 해마다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여 공익단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BK INC

의류전문업체인 BK INC(비케이 아이엔시)는 2012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의류 1,028벌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의류는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를 통해 23개 청소년단체에 점퍼 662벌,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코리아>의 홀리스 축제 'Big The Dream(빅 더 드림)'에 바지 366벌을 지원했습니다. BK INC는 매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의류 현물기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유비유필름, 엠플러스컨설팅, 호산물산, 마샬뷰티살롱, 한우물, 슬로워크, 베이비유, 신원엔티아이, 엘에스비컴퍼니, 디자인생선가게, 한국표준협회, 아트매틱, 사이로직, 씨엠코, 포레이션에이티 등 수많은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사업

6,817,674,075원

(배분사업비+현물지원비+운영사업비)

614단체 · 10,340명

프로젝트
680,299,872

인큐베이팅
1,441,228,358

운영
12,979,398

활동가
85,888,580

기타
46,649,316

교육문화권
267,785,119

경제권
927,139,367

주거권
364,714,678

공익활동 지원
2,220,396,208

건강권
915,004,072

생계권
306,825,538

운영
63,260

교육복지
517,401,039

창의적배움
467,927,484

테마이슈
122,242,623

운영
16,950

사회적약자 지원
2,828,181,350

연구
112,322,413

교육
129,109,348

캠페인
221,217,837

아동청소년 지원
1,107,588,096

기부문화 확산
462,649,598



공익활동 지원 〈변화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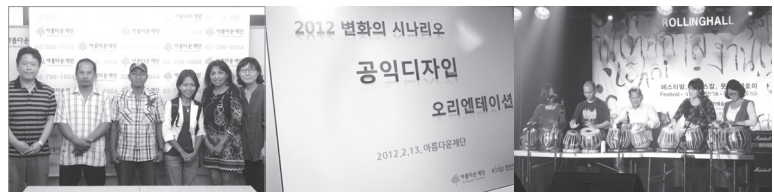
변화의 시나리오 전반을 재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한 첫 해입니다. 기존 13개 사업을 2개 사업과 7개 부분 사업으로 통합 개편했습니다. '접수-선정-지원-보고'의 기존 프로세스를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맞춰 '만들고-활동하고-평가하고'로 재구성했습니다. '조력자/파트너/기회제공자'로서 함께합니다.



새롭게 바꾸고 보완한 '변화의 시나리오'는 공익단체의 활동과 활동가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11개 사업에 125개 단체가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의로운 시나리오, 마음 다친 이웃을 위한 위로의 시나리오, 이웃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풀뿌리 시나리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도전의 시나리오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더 나은 변화와 진전을 위해 '변화의 시나리오'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공익활동, 성장, 회복, 지속 등과 서로 이끌며 진전된 성과를 공유합니다.



동네에서 시작하는 좋은 세상

서울 동작구 상도3, 4동은 '꿈틀이 마을'이다. 꿈틀이(지렁이)가 마을 여성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마을이며, 동네에서부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여성들의 꿈과 활동이 여기저기서 꿈틀대는 마을이다. 그 중심에 상도3, 4동 여성들의 풀씨모임이 있다.

풀씨모임과 꿈틀이 텃밭 가꾸기

2009년 5월 중순부터 상도3동주민센터 강의실을 빌려 주민강좌를 6번 진행했다. 장소를 빌리면서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주민센터 담당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는데,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후속모임을 자치회관 동아리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직접 말을 걸고, 모든 빌라와 마을버스에 안내지를 붙일 정도로 애쓴 덕에 30명이 참석한 강좌는 성공적이었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작은 마음들을 모아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풀씨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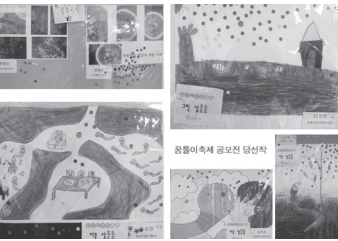
이렇게 재미나게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기를 '여성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함께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원래 생태 쪽은 풀씨모임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평소에 폭력예방은 예방교육만 아니라,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의 순환을 배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평화적 감수성이 싹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하면 겨울에 지렁이가 죽을 수 있다. 이웃과 함께 하자. 이웃과 어우러지는 꿈틀이 텃밭. 풀씨모임이 주축이 되어 꿈틀이 텃밭을 매개로 이웃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어디서 시작할까? 풀씨모임은 궁리 끝에 생태체험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을 택했다.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똥을 누면, 그것은 채소를 키우는 데 거름이 되고, 그렇게 자기가 키운 채소를 아이들은 잘 먹는다. 아이들이 생태순환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당시 한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을 열성적으로 모았는지 개원 이래 가장 많이 모인 날이라 한다.

어린이집의 작은 화단과 우리가 만든 나무상자 공동퇴비장을 이용해서 어린이집들이 꿈틀이 텃밭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했다. 상도3동주민센터의 복도와 옥상에도 나무상자 공동퇴비장과 토분을 두고, 응달져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바깥 화단도 꿈틀이 텃밭으로 거듭났다.

꿈틀이 골목길과 꿈틀이 축제

2010년부터 꿈틀이 텃밭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활동이 활성화되는 데 기폭제가 된 것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이었다. “풀뿌리를 응원합니다”는 빈말이 아니었다. 6개월밖에 활동하지 않았고, 아직 단체등록도 안 되었는데 지원을 받아 강좌도 하고, 나무상자 퇴비장과 토분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꿈틀이 골목길을 만들자고 했다. 2010년 봄, 풀씨모임은 상도3, 4동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 이웃되기 실천단을 양성하는 강좌를 진행해 새로운 사람을 합류시켰다. 풀씨모임 외에도 상도3동주민센터, 성대·신아·연꽃·또래또·우주·해와달 공동육아·실로암 등의 어린이집과 수유너머길,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은 꿈틀이 텃밭을 가꾸는 기관이 되어 상도3, 4동 주민들에게 꿈틀이 수업도 하고, 꿈틀이 분양도 했다.

또한 새롭게 분양하는 빌라의 건설주에게 찾아가서 구색으로 만들어놓은 화단운영을 위탁받아 청소하고 분변토를 넣어 꽃을 심었다. 상도3동주민센터부터 꼭대기의 다나네스트빌Ⅲ까지 꿈틀이 골목길을 만들어 꿈틀이 지도로 표시했다. 풀씨모임 회원들도 일상생활 중에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기관들이나 빌라화단, 마을공원의 지령이를 살펴본다. 마을공원에서 사권 중학생 아이들도 주말에 텃밭에 물도 주고 꽃도 심는다.

꿈틀이 마을축제도 늘 만나던 사람이라 쉽게 했다. 7월에 도화공원에서 하니까 참 좋다고 빙수골에서 더 하자고 해 8월에 한 번 더 했다. 풀뿌리운동은 골목길로 공원으로 길거리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업이고 마을축제도 그와 같아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여기저기 꿈틀꿈틀

2013년 지금, 상도3, 4동에서는 동네에서부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활동이 한창이다. 여기저기서 꿈틀이 수업을 하고 꿈틀이와 꿈틀이 토분을 분양한다. 3월부터 매주 ‘4기 그린이웃 실천단’ 교육이 진행되고, 1~3기 실천단원들은 장승중, 국사봉중, 강현중에서 꿈틀이 수업을 한다.

이웃이 이웃을 지키는 마을, 소통과 돌봄이 있는 마을, 지령이처럼 작은 생명체 하나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의 존재 의미를 살려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풀씨모임 회원들은 오늘도 상도3, 4동 마을길을 다니며 말을 건네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에 초대하고 있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풀씨모임’은 <그린(green) 이웃되기> 사업을 3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이는 지렁이 힘을 빌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데서 시작해 ‘그린이웃 실천단’ 양성교육에 달았습니다. 양성교육을 통해 마을 일꾼, 마을지기를 발굴했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만든 그린(Green) 공동퇴비장은 이웃이 만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린이웃 실천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한바퀴’를 돕니다. 공동퇴비장을 만든 곳들을 빠짐없이 방문해 동네 주민과 이야기 나눕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풀씨모임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입니다. 둘째는 시민의 기부금으로 지원받기에 더욱 소중하고 알차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의 나눔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한다고 더욱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 ‘모임’은 ‘단체’가 되었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끝났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환경 활동가 호리가 달려갑니다~!

인천의 환경현안과 교육활동, 시민들과 만나는 현장이면 언제나 함께 달려가는 활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녹색연합의 6번째 활동가인 승합차입니다. 2003년 인천녹색연합과 인연을 맺은 이래로 10여 년간 성실한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6번째 활동가가 있었기에 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활동 · 바다모래체취현장 · 계양산골프장개발현장 · 경인운하개발 및 송도갯벌매립 등의 지역현안 대응 활동, 하천생태계조사 · 인천복개하천실태조사 · 한남정맥환경조사 · 인천외래식물조사 등의 각종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조사 그리고 초록동무 · 계는 · 자연해설가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공항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장이 잦았지만 소중히 다루며 정기점검도 빼놓지 않고 관리한 터라 믿거나 하였습니

다. 허나 파랑기자단 활동 답사로 영종도에 다녀오는 길에 연기가 피어오르며 서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장만하는 것은 새 차든 중고차든 만만찮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오랜 회원의 후원을 시작으로 차량교체특별기금 모금을 진행하여 1천7백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를 통해 5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기존 차량의 판매수익과 운영비 예산을 보태서 차량 구입비 2천3백만 원을 모두 모아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출고!

'호리'와 처음 만난 날~!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인천녹색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나무꾼, 풍당, 박넝쿨 등의 자연이름이 있습니다. 새 식구가 된 차량 활동가를 맞이해 오래오래 다치지 말고

잘 달려주기를 기원하며 고사를 지냈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차량의 색깔이 호리분블루여서 그 이름을 따서 '호리'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호리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초록세상, 회원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천녹색연합의 이름을 달고 인천 곳곳의 환경활동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글 | 신정은(인천녹색연합)

활동가 11년을 시레토코에서 돌아보다

전화가 온다. “전진한씨 계세요?” 뭔가 불편한 느낌을 가진 기분 나쁜 음성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공공기관 담당자였다. 담당자는 다짜고짜 왜 이런 것을 청구하느냐며 부아가 치밀게 한다. 수천 번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 알고 싶어서 청구했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나? 친절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궁금해서 청구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갔다. 나는 공개하라고 열을 올리고, 저쪽에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말을 던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 옆에서 흔들어 깨운다. 그렇다. 꿈이었다. 현실도 모자라 이제 꿈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싸움을 한다. 흥분된 상태로 잠이 들고,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 활동가 11년의 세월이 낳은 직업병인 것이다. 수많은 활동가들은 스스로 대안적 직업을 찾아 시민활동가가 되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 누구도 그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상처를 숨기고, 참고 견딜 뿐이다.

어느 날 아름다운재단에서 ‘비움과 채움’(활동가 재충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수년간 각자 분야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을 쉬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 연수가 아닌 활동가들을 쉬게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프로그램 장소는 일본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거기서도 가장 북쪽인 시레토코이다. 그 공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솟았다. 우리 같은 활동가들에게 이렇게 신경 써 주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렇게 4박 5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선물 받았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5명과 공정여행 전문회사인 트래블러스맵의 직원 한 명이 여행안내를 했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 열정을 쏟아 부은 활동가들이었다.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 눈빛을 보는 순간 비슷한 경험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순수비행시간만 4시간, 차로 3시간, 대기시간까지 총 9시간이 넘는 여행이었다. 오전 8시에 출발해 저녁 6시가 다 되어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는 일본 전통 료칸이었고 주위는 온통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눈이 워낙에 많아 적설량이 1미터를 넘지 않으면 눈도 아니었다. 시레토코의 일 년 중 절반은 눈이 쌓여 있다.

짐을 풀고 현지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칠푼 같은 어둠속에서 부츠를 신고 숲속을 걸었다. 신기하게도 아무런 불빛도 없는데 눈에 비치는 별빛으로 가는 길들이 보였다. 좀 더 걸어 들어가자 난생 처음 보는 별들의 천국이 펼쳐졌다. 하늘에는 수천 아닌 수만의 별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고, 우리는 눈발에 누워 그 장면을 즐겼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으니 유성이 곳곳에 지나갔으며 우리는 소원을 빌었다. 북두칠성, 카



시오페이아 등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현지 안내인은 특수 레이저 빔을 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높이가 1미터가 넘는 눈길은 폭신했고, 바람도 시원했다. 하지만 이곳도 일 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여파로 오염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인간의 탐욕이 만든 쓰레기로 오염시켜 놓은 것이다. 분노를 넘어 슬픔이 밀려왔다.

첫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인의 기백을 보여야 할 때이다. 모두 피곤할 만도 한데, 료칸 숙소에서 캔 맥주를 사들고 밤 깊은 줄 모르고 얘기했다. 작은 방에 모여 사회 현실, 가정문제, 꿈, 인생 등을 얘기하며 공감하고 또 공감했다.

둘째 날은 여행의 백미였다. 아모리 강에서 내려오는 유빙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었고, 각종 천연기념물인 참수리 독수리와 사슴 등을 관찰하는 날이었다. 가장 기대가 큰 것은 특수 장비를 착용한 채 유빙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다. 먼저 곳곳을 다니며 각종 동물을 관찰하러 갔다. 망원경으로 본 참수리 독수리와 사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자연 속에서 양쪽 날개 길이 2미터가 넘는 참수리 독수리의 유유한 자태를 망원경으로 체험하는 것은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이었다. 심지어 10마리 넘게 한곳에서 쉬고 있었고, 사슴은 길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었다. 역설적인 현상은 이 지역에 사는 사슴 수만 마리가 나무껍질을 갉아 먹어 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이다. 사슴과 나무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다.



오후에는 유빙워크 시간이었다. 유빙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빙하다. 아침에는 마을 근처까지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먼 바다까지 밀려가기도 했다. 다행히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마을 근처까지 밀려들여와 있었다. 특수 장비를 입고 유빙 위를 걷기도 하고, 심지어 유빙 사이 수십 수십 미터 바다로 몸을 던졌다. 처음에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몸은 떠올랐고, 슬러시와 같은 얼음조각들이 몸을 마사지 해주었다. 큰 유빙에 같이 올라 발을 굴렀고, 유빙은 거대한 몸을 세우며 뒤집어졌다.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는 중장년들과 얼어 있는 바다 속의 따뜻함을 느꼈다.



셋째 날은 시레토코를 지키기 위한 100평방미터 운동에 대해 배웠다. 원래 사유지였던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보호하

기 위해 100평방미터운동이 시작되었다. 국립공원이 되면서 각종 이권사업, 골프장 등이 건설되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땅을 구입하는 운동을 펼쳤다. 1977년에 이 운동을 시작해 2010년에 완료되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참가하여 5억 2,249만 6천 엔을 모금해 447,56㎡의 땅을 사서 잘 보존하면서 자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운동은 계양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인천에 있는 계양산도 각종 개발사업과 골프장 건설 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계양산 한 평 사기 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정구 처장은 본인 딸들의 이름으로 시레토코 한 평을 구입하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이 운동의 주체가 샤리초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그렇게 구입한 땅의 소유도 샤리초로 되어 있고 이 지자체가 시레토코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자유 시간에는 시레토코 시민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갈하게 꾸민 마을 곳곳에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반겨 주었다. 특히 초등학교를 방문해보았는데, 마칩 하곳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우리에게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으로 인사하며 반겨주었다. 동네 우체국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고, 작은 가게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싼 정종을 구입했다.

넷째 날에 정든 시레토코를 떠났다. 쇠빙선을 타고 멀리 나가 유빙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바다에 뜬 셀 수 없는 얼음은 절경이었고 마음속까지 시원했다. 이후에는 <무한도전> 촬영으로 유명해진 아바시리 호수에서 빙어 낚시를 했다. 빙어를 잡아 바로 먹으려고 했으나 주최 측에서 놀란 토끼 눈으로 디스토마 등의 위험을 거론하며 만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뒤에 튀김으로 먹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호텔이다. 이분은 유학중에 일본인 학생을 만났고, 결혼 후 이곳에서 정착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자 숙소와 음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었고 나갈 때는 태극기를 흔들며 배웅했다.

이렇게 아쉬운 4박 5일 동안의 여행은 마무리되었다.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는 일에 서서히 지쳐갔고, 별달리 쉴 기회도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는 재미,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밤이 새도록 활동가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그 시간만큼은 집에 갈 걱정도, 다음날 출근할 걱정도 없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일에서 해방되어 걸어 온 길을 복기할 수 있었다. 서로 치유하는 느낌이었다.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고 3년 6개월을 달려왔고, 반성하고 또 계획할 수 있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채우기만 하면 넘치기만 할 뿐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없다. ‘비움과 채움’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시간을 빌어 이런 기회를 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한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투명한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또한 이런 기회를 수많은 활동가들이 경험했으면 한다. 그분들의 활동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런 여행이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012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15단체 활동가 20명(기획주제 5단체 5명, 자유주제 10단체 15명)에게 심과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주제에 선정된 활동가 5명이 지난 2012년 2월 20일~24일 일본 홋카이도 시레토코를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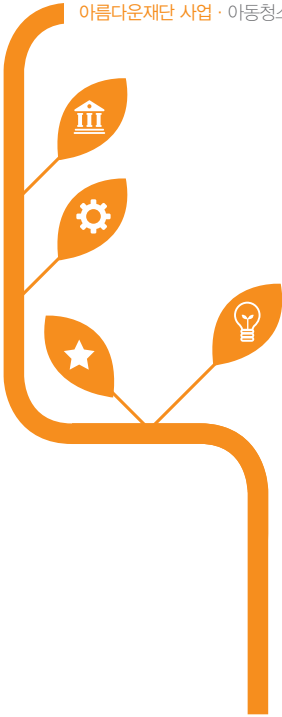
글 |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단체	개인	2012 배분	2011~2012 환급
인큐베이팅	공익변호사그룹 공감활동	1		1,349,132,938	-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1		92,095,420	0
프로젝트	변화의시나리오 특별지원(작은도서관)	21		105,000,000	0
	변화의시나리오 특별지원(다문화도서관)	3		60,012,900	0
	변화의시나리오 특별지원(인프라)	6		52,563,500	0
	우투로 지원사업	1		338,911,920	0
	변화의시나리오 기존연속 1)	18		0	11,003,99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 2)	4		0	136,43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B 3)	10		0	15,763,648
	공익디자인 4)	0		0	10,480
	공익네트워크	4		20,000,000	3,255,214 5)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36		139,449,040	5,467,719 6)
활동가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27	56,270,860	0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 자녀보육비		18	35,408,600	3,795,180 7)
	변화의시나리오 환경활동가 자녀교육비 8)		0	4,300	2,000,000
운영	변화의시나리오 사업진행비			11,632,698	0
	지원사업 진행비 9)			1,346,700	0
2012 배분지원금 소계(A)				2,261,828,876	
2011~2012 배분지원 환급 소계(B)					41,432,668
영역계 (A-B)					2,220,396,208

[공익활동 지원사업 도움말]

- 1) 기존연속 지원사업 중 2011~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16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2) 프로젝트A 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2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3) 프로젝트B 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4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4) 공익디자인 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1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5) 공익네트워크 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1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6) 스폰서 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7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7) 활동가 자녀보육비 지원사업 중 2011~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2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8) 환경활동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중 2012년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1단체가 환급하였습니다.
 - 9) 2012년 지원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집행한 진행비를 공익영역에 반영하였습니다.
- 1.2.3.4)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 사업비를 전년도 연말에 지원하여 2011년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원 <꿈꾸는 다음세대>

다음세대가 진정으로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학금은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도반이 됩니다. 이에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교통사고 유자녀의 교육비, 실직가정의 교육비 등 학비를 보조하는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지원해 입학과 성장을 격려했습니다. 꿈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경험 속에서 이룰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자발적 여행지원사업, 자발적 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을 정돈하고 강화했습니다. 문신을 없애 자존감을 높이는 사업도 계속되었습니다.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에서는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평가하고 정리해 협력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직접 진행한 아동양육시설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협약을 맺어 협력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복학희망자에게 초점을 맞춰 학업을 유지하고 대학졸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 퇴소 학생들이 연수교육, 사례관리, 온라인모임 등으로 자립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꿨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힘을 보였습니다.

2011년에는 협력업체로 함께한 여행지원사업의 트레이너스맵은 2012년 사업부터 협력단체로 전환하여 그간 갈등을 느꼈던 지원단체들에 대한 여행컨설팅, 멘토, 인프라 등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었습니다. 교육과 여행컨설팅 등에서 더욱 강화된 전문성을 통해 여행지원사업이 꿈꾸는 다음세대의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핫앤쿨’을 아시나요?

‘청소년핫앤쿨’은 마포FM(에프엠) 주말 오후4시를 책임지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자 ‘2012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으로 선정된 단체입니다. 마포FM은 공동체 라디오방송인데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부를 방송권역으로 합니다. 주파수 100.7Mhz(메가헤르쯔)를 맞추면 이웃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핫앤쿨’은 방년 18세 청소년 강동연, 김건우, 윤현섭, 장동요 군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즐겁고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마포FM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핫앤쿨’은 유일한 청소년 진행 프로그램으로 십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방송까지 도맡습니다. 가끔은 동네이야기도 하고, 진지한 사회이슈와 고민거리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진행자, 엔지니어, 작가, PD(피디)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개성과 관심사가 매 주마다 달라하는 주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동네에 사는 유명 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서함을 둔 학교의 학생과 전화로 연결하여 스피드 퀴즈를 푸는 등 자신과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줄곧 마련합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에 마련된 사서함(이미지출처 : 청소년핫앤쿨 페이스북 페이지)

미디어 문화 활동에 관심이 깊어 관련 분야에 장래희망을 둔 이들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송팀을 결성하여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문화 활동 기회를 누리고 서로 힘을 보태 더욱 알찬 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핫앤쿨’의 활동은 판도라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핫앤쿨’은 참여 청소년들이 고3 수험생이 되면서 방송과 활동을 잠시 접었습니다. 스무살 청년이 되어 다시 들려줄 그들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배분사업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을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주세요!

글 | 정홍미 간사

꿈을 새깁니다 - 청소년 문신 제거기술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문신은 피부 깊숙이 진피층에 색소를 넣어 살갗에 무늬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문신을 새기는 데는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피부가 약한 청소년들이 문신을 제거하려면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번 레이저 시술을 하고 3~4주가 지나 새 피부가 돌아야 다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누군가에게는 멋과 개성,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상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신 제거기술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폭력,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내몰린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문신을 새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한때의 방황과 섣부른 결정으로 새긴 문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신 제거 시술 현장 /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문의

문신을 새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정이나 사랑의 표시로 새기는 일명 '자가 문신'은 바늘이나 문구용 칼로 피부에 무늬나 글귀를 새기고 먹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새긴 문신은 범위가 크지 않거나 깊이 찌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나마 시술이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 타투 영업을 하는 곳에서 새긴 용과 잉어 같은 화려한 문신은 제거시술도 어렵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같이 불법 타투 영업을 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가 문신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문신시술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흔히 '타투'라고 부르는 문신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문신시술 만큼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문신은 새길 때보다 지울 때 몇 십 배의 아픔과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물론 가끔 저도 예쁘게 문신을 새긴 연예인들을 보고 영구문신은 아니더라도 헤나 타투(2~4주안에 지워지는 문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문신도 개성의 한 표현이고, 추억과 의미를 담아 문신을 새긴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문신을 새겨주는 어른들,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시술로 새긴 청소년들의 문신들 / 자립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자립 프로그램

아름다운재단은 단순히 문신을 지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자립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내몰리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기회도 빼앗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청소년들은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문신이 지워질수록 저마다 간직한 꿈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아동청소년 소원이루기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문신 제거시술 및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총 16명의 청소년이 문신으로 인하여 접을 수밖에 없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신제거 시술 전 / 시술 후
(10개월 시술기간 소요 후)

글 | 장정원 간사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단체	개인	2012 배분	2011~2012 환급
교육복지	아동양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60	110,652,330	70,000 1)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71	169,005,280	15,910,667 2)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7	62,700,350	0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3	86,668,792	7,988,860 3)
	대전지역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7	44,096,364	0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8	36,000,000	2,000,000 4)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3	5,769,000	0
	대학생 단기 어학연수 지원사업		4	28,478,450	0
창의적배움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9		20,458,110	2,294,183 5)
	청소년 여행활동 지원사업	15		133,182,500	32,201,411 6)
	아동청소년문화체험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50		133,283,960	104,236 7)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30		87,795,300	0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92	78,773,050	15,519,094 8)
	연금술사지정기탁사업(시설청소년자립지원교육)	1		58,553,488	0
	하라기금 지정기탁사업	2		6,000,000	0
테마이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196	61,323,100	1,818,700 9)
	동청소년소원이루기지원사업		16	82,617,350	19,879,127 10)
	청소년문신제거 시술 및 자립지원				
운영	꿈꾸는다음세대 사업진행비			16,950	0
2012 배분지원금 소계(A)				1,205,374,374	
2011~2012 배분지원 환급 소계(B)				97,786,278	
영역계 (A-B)				1,107,588,096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도움말]

- 1) 아동양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2) 2011년과 2012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고등학생 중 11명이 타 기관 장학금을 받아 지원금을 환급하였습니다.
- 3)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4)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6,8)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 협력기관에 지급한 운영비와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7) 아동청소년문화체험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 10) 아동청소년소원이루기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적 돌봄〉

돌봄의 연대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사회의 안전 지수를 높이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노인낙상을 방지하는 보조기구 사업, 한부모 여성 가정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국을 배달하며 안부를 묻고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섭고 기름값이 걱정되어 냉골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지원했습니다. 건강한 이 스무 개는 지킬 수 있도록 초과 진료를 거들었습니다. 어른의 보살핌 없이 지내야 하는 소년소녀 가정의 주거를 돌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 좀 더 일찍 태어난 이룬둥이의 진료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한부모 여성 가정 이 가게를 열어 아이들을 건사하고 살림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생필품을 증개하며 그룹홈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든든한 벗이 될 두꺼운 점퍼도 잘 전달했습니다.








보조기구를 통해 새 희망을 찾아갑니다

보조기구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가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며 재활에 보탬이 되는 필수품입니다. 눈이 나쁘면 시력을 검사해서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춰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탓에 몸에 맞지 않아도 교체하지 못하거나 아예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보조기구로는 휠체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몸을 지탱하고 있기 어려운 경우는 착석자세유지자가 필요하고, 서 있는 게 힘들 때는 기립보조기구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사용하는 이의 몸에 꼭 맞게 제작해야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에서도 보조기구가 더 많은 가능성을 주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아동청소년기입니다. 신체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동청소년기에 개인의 신체와 장애 정도에 딱 맞는 보조기구는 장애 정도를 더 나쁘지 않게 하거나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성인체형에 맞춰 나온 기성 장애보조기구를 쓰는 경우, 몸에 맞지 않는 보조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참고 사진	제품 특성
착석 자세 보조 기구	C-1 	①등받이 각도조절 (리클라이닝) 맞춤 의자 착석면은 고정되어 있고 등받이의 각이 뒤쪽으로 약 5~15° 가량 조절되는 의자의 구조를 말하며, 사용자의 자세 변형 정도에 맞춰 기본형, 블록형, 맞춤형 자세보조기구(이너)를 삽입할 수 있음
	C-2 	②좌석각도 조절 (틸팅) 맞춤의자 착석면과 등받이의 각(seat-to-back angle)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착석면과 등받이의 각도를 동시에 전후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의자 구조를 말하며, 사용자의 자세변형 정도에 맞춰 기본형, 블록형, 맞춤형 자세보조기구(이너)를 삽입할 수 있음
기립 자세 보조 기구	S-1 	③전방지지형 기립자세유지 보조기구 신체의 전방(가슴)을 지지하여 기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로 사용자는 고개를 가눌 수 있어야 하며, 체간조절이 일부 가능해야 함
	S-2 	④후방지지형 기립자세유지 보조기구 신체의 후방(등)을 지지하여 기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로 사용자가 고개를 가누기 힘들거나 기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음
이동 기립 보조 기구	MW-1 	⑤전동기립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에 기립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사용자의 상지 운동 기능이 원활하여 이동과 함께 기립훈련을 병행할 수 있음 ※ 대구시, 울산시 제외

아름다운재단은 착석 및 기립자세보조기구(4품목), 이동기립보조기구(1품목)의 총 3개영역 5개 품목 가운데 1인 1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는 신청자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인지, 지원받은 보조기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인지 등 지원관련 설계와 지속적인 사례축적과 상담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가정을 방문하다

1. 이젠 집에서도 서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기립자세유지기구(스탠더)가 생긴 하늘이(가명)는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덟 살 하늘이는 다행이도 하지근력이 남아 있어서 스탠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없거나 변형이 일어나서 척추측만까지 진행됐다면 스탠더를 이용한 재활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사님이 스탠더를 하늘이 몸에 꼭꼭하게 맞추니 아이는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스탠더를 활용해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잘 할 수 있다며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는 하늘이가 대견합니다. 장애가 더 진행되기 전에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입니다. 희망을 안고 다리에 힘을 주는 엄마와 하늘이에게 스탠더가 좋은 벗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 19살 장미에게 찾아온 선물

새 의자에 앉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착석자세유지의자를 가지고 장미(가명) 네를 찾은 건 장미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찍던 날입니다. 장미에게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어렵게 마련한 10살 된 의자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장미는 성장했지만 의자는 구석구석 고장을 일으켜 지금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교체해야 해도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새출발을 준비할 때 찾아와준 의자가 무척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앉아 있을 수 없는 장미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준 의자. 계단이 있는 집이라 밖을 나설 때마다 아이를 안고, 또 의자를 들고 움직였는데 이별하러니 서운합니다. 하지만 새 의자를 보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여쁜 숙녀가 된 장미가 새롭게 나설 세상에 이 의자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를 바랍니다.



글 | 고혜진 간사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2012년 노인 낙상예방 맞춤형 보조기구 사업

무심코 지나던 모든 사물을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거나,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몸 성한 이들에게는 있는지도 모를 문지방과 광나게 닦아 놓은 마룻바닥이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난공불락 태산 같을 수도, 빙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끔하고 편리한 것들이 상황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낮추고자 ‘노인 낙상예방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체 상황과 평소 생활하는 곳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실사를 하며 낙상 위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미끄러운 바닥 /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쇠약한 무릎과 손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 / 실내 이동 보조기구의 잘못된 사용 / 가파른 2층 계단

낙상예방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도처에 널린 위험 요인을 목격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별 좋은 날, 바람 시원한 날, 안전하게 거동하여 마음 편히 햇살과 바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견지하는 복지는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글 | 김진아 간사

작은집에 햇볕한줌, 1년을 돌아보며

2007년부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하고 있는 '작은집에 햇볕한줌' 소년소녀 가정 주거 지원사업이 어느덧 햇수로 6년 째,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총 646명의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밀린 임대료와 연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그간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기 소년소녀가정 세대만 지원하던 것에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한부모, 조손가정 등을 포함한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까지 지원의 폭을 넓혔고, 1년 지원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 범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선정세대수	72개소 136세대	51개소 113세대	59개소 112세대	46개소 85세대	46개소 100세대	51개소 100세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대전에서 열린 2012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실무자간담회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지원 대상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실무자간담회를 했습니다.

2011년 담당 선생님들의 사례발표와 더불어 2012년에 새로 사업을 담당하게 된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자리였는데요,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감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소년소녀 가정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는 평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만나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담당자와 대상자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보니 사례관리의 효과가 그 어느 사업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주거비 지원’이 단순히 빈곤한 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아이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로, 다른 아이에게는 교육으로, 또 다른 아이에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생긴 지 20여 년, 담당 선생님들은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타기관이나 후원자들의 지원은 단순히 생계비나 장학금이 절대 다수입니다. 소년소녀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별로 나오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지급과 영수증 확인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업들의 대상자와는 달리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다보니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지원을 연계할 수 없을지 담당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지원받아 생긴 생활비 차액은 바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간 식사가 부실했던 아이들이 좀 더 잘 먹고, 마음에만 담고 미루어왔던 학원도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꿈이 없다고 늘 말했던 한 친구가 올해 원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기뻐요!”

“단기간에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늘 후원자들은 큰 기대를 겁니다.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늘 묵직한 결과 보고서로만 보였던 여러 기관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다 보니, 진지한 눈빛에 담긴 여러 선생님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주거비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자립을 해가는 것을 볼 때 흐뭇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성인들이 어느새 근로능력이 없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층이 되어 가시더라구요. 이들에게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빈곤의 굴레를 벗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니 말이에요.”

“사례를 관리하다보면 아이들의 공부방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당장 먹고살기도 시급한 마당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교육비를 제일 먼저 줄여야만 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새터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한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환경을 지닌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잘 어울리기란 쉽지 않거든요.”

아름다운재단도 각 지역의 사례기관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 서로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좋았습니다. 2012년 함께해주시는 51개 기관 선생님들! 올 한 해도 열심히 아이들의 힘이 되어 주실 거지요?

글 | 장정원 간사

함께 키우는 아기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지원사업

2004년 9월부터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은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를 통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1천4백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초기 입원 치료비와 24개월 이내 재입원 치료비, 만 6세 이하의 재활 치료비까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이른둥이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이른둥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병마와 홀로 싸우며 세상과 직면합니다. 인큐베이터 안 가녀린 작은 생명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 속에 매순간이 위기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부모는 탄생의 기쁨을 누릴 새 없이 나누지 못하는 아기의 고통과 수백, 수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출생 직후 집중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른둥이와 가족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소중한 나눔은 든든한 길 벗이 됩니다.

문의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전화 02-3675-1231 / 팩스 02-3675-1230

홈페이지 www.babydasom.org

글 | 전서영 간사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단체	개인	2012 배분	2011~2012 환급
건강권	노인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194	200,132,070	69,586 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98	227,228,920	82,397,541 2)
	저소득근로자 치과 치료 지원사업		52	100,104,140	2,613,330 3)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1		20,111,000	0
	다솨이작은숨결살리기		157	452,508,399	0
경제권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34	927,139,367	0
교육문화권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31	268,247,250	462,131 4)
생계권	배양숙님 생필품 현물기부 지원사업 5)	327		102,320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국배달 지원사업		3,720	208,102,850	2,623,004 6)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78	98,891,670	848,298 7)
	나눔천사를위한이창식기금 지정기탁사업		1	700,000	0
	휴머스기금 협약에 따른 중개 지원	1	1	2,500,000	0
주거권	無더위 캠페인 배분		2,745	99,429,963	0
	어르신난방비 지원사업		186	40,122,000	0
	에너지복지지원사업		10	45,440,140	563,118 8)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100	219,301,350	39,015,657 9)
기타	노숙인 겨울나기 현물기부 지원사업 10)		1,000	278,750	
	범죄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12	24,100,000	12,085 11)
	BK Inc 의류 현물기부 지원사업 12)	24		408,120	
	유기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	1		30,143,900	8,269,369 13)
운영	신규 중개사업 조사 및 진행비			57,060	0
	사회적돌봄 영역 신규 사업개발 진행비			6,200	0
2012 배분지원금 소계(A)				2,965,055,469	
2011~2012 배분지원 환급 소계(B)					136,874,119
영역계 (A-B)					2,828,181,350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도움말]

1,2,3,6,7,8,9,11) 지원사업비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4)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중 2011년과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5) 생필품의 현물가 99,000,000원은 현물 지원비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10) 노숙인 겨울나기 용품의 현물가 30,490,000원은 현물 지원비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12) 의류 현물가 18,588,601원은 현물 지원비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13) 유기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 중 2012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기빙코리아> <나눔교육>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은 국내외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연 '개미스폰서'는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참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연구소의 나눔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되며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연구소는 고유의 기부문화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지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가 12회를 맞아 2011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를 발표하고 국제기부지수로서 기빙 인덱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내 민간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눔교육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배움과 실천 속에 나눔을 실천하여 나눔의 리더십을 갖춘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눔교육을 통해 자란 어린이 모금가 '반디'는 커뮤니티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청소년 나눔 토크 콘서트 '여우와 장미'는 꿈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열어 단체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개미스폰서'는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 공익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단체, 모임, 시민과 나눔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나눔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제 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부문화 연구인 Giving Korea(기빙 코리아)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의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기부문화의 진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한국 기부자 성향을 분석하고, 기부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는 국제비교지수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부문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향후 발전 방향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행사개요

- 일 시 : 2012년 10월 17일(수)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아름다운재단 · 주 관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대 상 : NGO, NPO 실무자, 기업사회공헌담당자, 관련 연구자, 대학생 및 일반시민 200명
- 참가비 : 일반 30,000원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20,000원

프로그램

접수 및 등록	
개회사	김영진(한국약품 회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환영사	예종석(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전체 프로그램 소개	사회 : 박성연(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1년도 한국인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한국 기부자 성향 심층분석	
2011년 한국인 개인기부 지수 결과 발표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기부자 성향 심층 분석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Q&A	
Coffee Break	
기부문화발전의 첫걸음, 국제 비교 지수로서의 기빙인덱스 발전방안	
미국의 기부행태(The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연구 방법과 사례발표	Amir Daniel Hayat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응용 통계학자)
국내외 나눔통계현황 및 분석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심으로	윤연옥(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실장)
패널 토론	좌장 :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패널 : 박태규(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Amir Daniel Hayat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응용 통계학자)
	윤연옥(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실장)
Q&A	
폐회사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경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다

교육을 받을 때 강사로부터 배우는 것도 많지만 참가자들과 만나며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우게 됩니다. 특히 비영리 활동가들이 모였을 때, 비슷한 처지에 공감도 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가 집약적으로 펼쳐지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그 마지막 Post-workshop(포스트 워크숍) 단체들이 40일간 '이것만은 꼭 실행해보겠다'고 짠 활동계획의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교육 참가자들과 강사로 활약한 곽동수 교수님, 박재우 부장님, 김대현 팀장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분들은 단체들의 경험과 실천 내용을 듣고 조언하기 위해 특별히 초청되었습니다.

블로그 일일 방문자가 20명에서 500명으로, 그 기적 같은 경험!



임혜진(사단법인 더나은세상)

“9월 중순까지 10명 정도가 블로그에 방문했는데, 그때는 홈페이지 소식을 옮겨놓는 수준이었어요. 워크숍을 통해 블로그가 콘텐츠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환경, 문화, 지역사회, 교육 정책 관련된 글들을 좀 버겁긴 했지만 주 3~8회 정도 올렸어요. 포스팅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기는 어려웠지만 모니터링을 부탁해서 피드백도 많이 받았죠. 근데 정말 방문객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의성 있는 이슈들,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 관련 내용을 올리니까 확실히 많이 늘더라고요. 1백, 2백, 3백, 그 다음주에는 5백까지 늘었어요. 앞으로는 주제별로 콘텐츠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어요.”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블로그 blog.naver.com/youth_world

다양한 SNS(에스엔에스) 이벤트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감동 나눔을!

“교육받은 그대로 조직의 아이덴티티부터 내부에서 토론했으며 전략을 짰어요. 사회복지사들에게 일차적 지원이 아닌 감동 나눔을 선사하자고 결론을 내렸죠. 전에는 블로그에 소식을 중심으로 올렸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유하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사 칭찬 이벤트, 부부의날 꽃배달 이벤트 등으로 공감을 만들고 있고요.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답문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공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정은(중부재단)

중부재단 블로그 admin.blog.naver.com/jungbu01

블로그 방문자 늘고, 실제 후원으로 연결까지!



김미리(사단법인 둥근나라)

“전에는 블로그에 행사 소식만 올렸는데 지금은 외국의 그룹홈 사례나 지역 이슈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니깐 공부가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20~30건이었는데 지금은 120건 이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워크숍을 통해 조직의 마인드와 인식이 변한 것 같아요. 조직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방향을 논의하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예전에는 후원자들에게 소식지 한 장만 달랑 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블로그랑 페북도 들어가 보세요 하고 소개하니깐 각인이 됐는지 30만 원 이상 후원으로 연결되기도 했어요.” 사단법인 둥근나라 블로그 blog.naver.com/dgnrc

개미스폰서를 통한 모금 시도, 실패를 통해 배우다



맹지은(아름다운커피)

“우리는 네팔의 커피 생산자 역량강화를 걸고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에서 모금을 시도했어요. 목표 모금액은 6백만 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많이 홍보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왜 실패했을까. 다른 곳들을 유심히 보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올리는데 우리는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다 올리면서 모금액도 너무 높이 잡았던 거죠. 실패를 통해 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SNS(에스엔에스)에서 ‘매일 2시는 이퀄타임’이라는 이벤트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공유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콘텐츠를 올려야 많이 확산이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워크숍을 통해 자신감과 지식이 생기니까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커피 블로그 blog.naver.com/fair_coffee

블링블링 휠체어, 이 콘텐츠만큼은 우리가 한다!

“저희는 일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디자인을 통일했어요. 블로그 운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아직은 크지 않아요. 대신 장애인 관련 이슈를 다루는 파워블로거들과 관계를 맺고 글도 퍼 나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개하고 싶은 건 지금 연재 중인 ‘블링블링 휠체어’ 콘텐츠예요. 아



박창록(마포가은)

간에 울퉁불퉁한 보행로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블링블링 휠체어로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밤에 보면 반짝반짝해서 예뻐요.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알리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마포가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blog.daum.net/mpcil

해피빈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 해요!



신난이(시소와그네)

“시소와그네는 일단 해피로그, 해피빈에 집중해보려고 해요. 워크숍을 통해 관심 키워드를 찾고 해피로그에 5~6개 정도 글을 올렸어요. 단체를 알리는 내용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13년에는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블로그를 운영해보려고 해요. 교육을 통해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을 알았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소통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전국에 8개 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협업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전국 센터장님들 회의에서 함께 방향을 모색 중이에요.”

시소와그네 인천연수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sisoandswing.do

이밖에도 많은 교육 참가자들이 담당자와 조직의 변화의 과정, 좌절과 실패의 경험, 워크숍이 남긴 것들을 이 자리에서 공유했습니다. 단체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합니다.

글 | 신혜정 간사

나눔? 어렵지 않아요~!

“나눔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막막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기부가 나눔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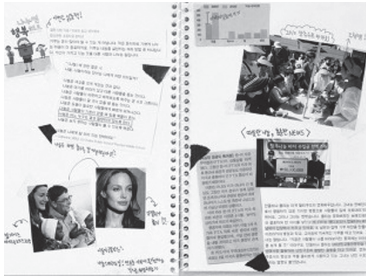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이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나눔을 재미있게 즐기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린이를 위한 생활 속 나눔실천 방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기

학용품, 과자, 장난감, 용돈, 종이접기를 잘 하는 방법, 어려운 친구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마음, 웃어른을 공경하고 인사를 잘하는 예의바름 등 나눌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2. 나눔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조사하거나 공부하기



나눔스크랩북 © 레몬트리

나의 나눔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나요? 인터넷이나 미디어 매체, 책 등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여쭙 보면 가르쳐주실 거예요. 나의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의 <나눔스크랩북>을 만들어서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3. 작은 것, 쉬운 것부터 나눔 실천하기

나눔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것, 물건을 빌려주거나 양보하는 것. 진정한 나눔은 이런 소박한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4.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재활용하는 것도 나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것, 쓰고 남은 종이나 공책을 잘 모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 작아져서 입지 않는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등. 모두 나눔입니다.

5. 먼저 가족과 친구에게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가족과 친구에게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잘 알게 됩니다.

6.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나눔의 계획 세우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면 실천할 수 있는 더욱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은 실천으로 이끌고 실천은 보람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7. 오늘 할 수 있는 나눔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기



나눔의 기쁨을 맛본 친구들이라면 오늘 할 수 있는 나눔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을 거예요. 나눔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은 나눔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 아름다운재단

8.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듣기

여러분 주위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름다운 나눔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눔 선배들에게 내가 몰랐던 나눔의 기회나 방법도 들을 수 있습니다.

9.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해 보세요.

10.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눔의 홍보대사 되기



집, 학교, 학원 등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눔을 이야기해 보세요. 직접 경험한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해주세요. 나눔을 잘 모르거나 알지만 실천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나눔클럽 '나눔길라잡이'

'어린이 나눔클럽'에 가입하면, 나눔을 재미있게 배우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나눔클럽(www.bf1004.org)은 아름다운재단이 만든 초등학교생을 위한 체험중심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나눔교육 홈스쿨링 키트와 나눔캠프, 어린이 모금가 '반디' 등으로 구성된 나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글 | 임주현 간사

(단위 : 원)

특성	사업명	단체	개인	2012 배분	2011~2012 환급
연구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9	58,111,524	0
	국내민간공익재단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 진행		80	16,278,955	0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및 발표회		80	11,782,964	0
	기부문화연구소운영			26,148,970	0
교육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20		4,172,310	0
	비영리단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3		9,270,318	0
	비영리컨퍼런스 기획 진행비			288,522	0
	기부문화도서관운영			26,603,404	0
	어린이 나눔클럽		250	45,221,447	0
	청소년 나눔 토크콘서트 '여우와 장미'		550	43,553,347	0
캠페인	소셜펀딩 개미스폰서	25		149,361,548	3,020,000 1)
	기부 참여안내 및 홍보			69,517,481	0
	나는반대합니다 시즌2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5,441,400 2)	0
	일본지진 피해주민을 돕는 1004엔 캠페인			5,500 3)	0
	결식제로 캠페인			0	88,092 4)
2012 배분지원금 소계(A)				465,757,690	
2011~2012 배분지원 환급 소계(B)					3,108,092
영역계 (A-B)					462,649,598

[기부문화 확산사업 도움말]

- 1) 소셜펀딩에 성공한 '달콤한네손 프로젝트'가 제안자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사업비를 환급하였습니다.
- 2) 나는반대합니다 시즌 2 캠페인은 2012년 11월 12일 시작하여 2013년 2월 10일 종료하였습니다.
2012년 지출분은 이슈 확산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 3) 일본대지진 피해주민을 돕는 1004엔 캠페인 지원사업 결과보고 자료집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 4) 결식제로 캠페인 지원사업 중 2011년에 지급한 사업비의 잔액을 환급하였습니다.

지원사업비 '환급'은 지원을 받은 단체와 개인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사업비를 아껴쓰고 따로 모금하여 총당한 부분을 해당 기금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기부금외수입
5,394,435,796

배당수익 190,754,500
보유주식 처분이익 3,446,391,300
이자수익 1,741,879,846
사업수입 14,511,643
기타수입 898,507

기금수입
6,863,060,979

운영후원금
985,095,219

현물기부금
165,537,657

기부금수입
8,013,693,855

수입현황

13,408,129,651^년원

운영비

1,682,460,627

관리비
719,854,358

인건비
962,606,269

잡손실 및 법인세 등
386,270,186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39,450,000

사업비

6,817,674,075

현물지원비
167,217,657

운영사업비
31,641,166

배분사업비
6,618,815,252

영업외비용

645,979,903

이자비용
120,259,717

지출현황

9,146,114,605^년원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이 주인 되어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갑니다.
시민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재정

2012년 수입 현황

(단위 : 원)

구분	항목	금액	비율
기부금 수입	기금수입 기금	6,863,060,979	86%
	운영후원금 운영기금	985,095,219	12%
	현물기부금 현물기부	165,537,657	2%
소계		8,013,693,855	100% 60%
기부금 외 수입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익	1,741,879,846	32%
	배당수익	190,754,500	4%
	사업수입	14,511,643	0.3%
	기타수입 보유주식 처분이익	3,446,391,300	64%
	기타 수입	898,507	0.02%
소계		5,394,435,796	100% 40%
합계		13,408,129,651	100%

2012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항목	금액	비율	
사업비	배분사업비	6,618,815,252	97%	
	운영사업비	31,641,166	0.5%	
	현물지원비	167,217,657	2%	
소계		6,817,674,075	100%	75%
운영비	인건비	962,606,269	57%	
	관리비	719,854,358	43%	
소계		1,682,460,627	100%	18%
영업 외 비용	이자비용	120,259,717	19%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39,450,000	22%	
	집손실 및 법인세등	386,270,186	60%	
소계		645,979,903	100%	7%
합계		9,146,114,605		100%

아름다운재단 기금운용 현황(2012년 12월 31일)

(단위 : 원)

항목	구분	금액	비율	
예금 등	요구불예금	2,015,002,097	4.6%	
	저축성예금	576,096,669	1.3%	
	정기예금	13,000,000,000	29.7%	
	금전신탁	1,040,192,899	2.4%	
	금융채권	27,162,212,450	62.0%	
소계		43,793,504,115	100%	89.8%
주식	주식	4,976,890,500	10.2%	
합계		48,770,394,615	100%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
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
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
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
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재단은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및 주석2에 기재
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
기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부금수입의 경우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
침서'와 주석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 리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정 이 성
정 이 성



2013년 2월 22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2월 22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3 (당)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전)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3 (당) 기	제 12 (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31,252,759,975	35,263,770,195
(1) 당좌자산	31,252,759,975	35,263,770,19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938,744,148	7,653,165,901
2. 단기금융상품	13,000,000,000	10,109,380,000
3. 단기매도가능증권	14,942,549,310	17,239,793,624
4. 미수금	44,067,697	43,787,315
5. 미수수익	304,290,250	151,703,999
6. 선금금	17,993,570	33,666,300
7. 미수법인세환급액	-	25,478,056
8. 기부물품	5,115,000	6,795,000
II. 비유동자산	34,574,696,084	27,895,522,015
(1) 투자자산	27,603,244,773	21,054,350,380
1. 매도가능증권	6,339,709,584	-
2. 만기보유증권	11,549,391,573	11,337,945,764
3. 보험자산	363,330,500	365,591,500
4. 아름다운가게출연금	9,350,813,116	9,350,813,116
(2) 유형자산	4,853,901,664	4,941,361,068
1. 토지	4,017,517,801	4,017,517,801
2. 건물	885,105,170	867,799,420
감가상각누계액	(116,135,228)	(28,266,378)
3. 기타의 유형자산	138,935,504	136,417,704
감가상각누계액	(71,521,583)	(52,107,479)

과 목	제 13 (당) 기	제 12 (전) 기
(3) 무형자산	14,562,167	19,523,167
1. 소프트웨어	4,552,167	6,653,167
2. 기타의무형자산	10,010,000	12,870,000
(4) 기타비유동자산	2,102,987,480	1,880,287,400
1. 보증금	2,102,987,480	1,880,287,400
자산총계	65,827,456,059	63,159,292,210
부채		
I. 유동부채	3,396,685,131	3,187,242,878
1. 단기차입금	3,000,000,000	3,000,000,000
2. 미지급금	261,902,613	170,113,401
3. 예수금	10,663,050	14,651,560
4. 미지급비용	1,315,068	2,477,917
5. 선수금	10,000,000	-
6. 미지급법인세	112,804,400	-
II. 비유동부채	221,751,689	482,618,197
1. 퇴직급여충당부채	221,751,689	482,618,197
부채총계	3,618,436,820	3,669,861,075
자본		
I. 자본금	47,763,498,447	42,864,585,914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7,436,589,213	42,537,676,680
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164,892,704	4,647,477,746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164,892,704	4,761,494,628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114,016,882)
III. 이익잉여금	11,280,628,088	11,977,367,475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40,185,331	1,072,180,514
2. 미처분이익잉여금	8,240,442,757	10,905,186,961
자본총계	62,209,019,239	59,489,431,135
부채와 자본총계	65,827,456,059	63,159,292,210

운 영 성 과 표

제 13 (당)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 12 (전)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3 (당) 기	제 12 (전) 기
제약이 없는 순자산변동		
I. 사업수익	9,960,839,844	10,712,016,262
(1) 고유목적사업수익	9,960,839,844	10,712,016,262
1. 기금수입	6,863,060,979	8,102,807,403
2. 현물기부수입	165,537,657	240,504,207
3. 운영후원금수입	985,095,219	536,952,703
4. 이자수익	1,741,879,846	1,583,645,979
5. 배당금수익	190,754,500	212,510,150
6. 사업수입	14,511,643	35,595,820
II. 사업비용	8,500,134,702	8,200,557,758
(1) 사업비	6,817,674,075	6,466,046,630
(2) 일반관리비	1,682,460,627	1,734,511,128
III. 사업이익	1,460,705,142	2,511,458,504
IV. 사업외수익	3,447,289,807	2,195,735,619
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446,391,300	2,184,622,437
2. 잡이익	898,507	11,113,182
V. 사업외비용	645,979,903	262,047,798
1. 이자비용	120,259,717	108,072,972
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39,450,000	-
3. 유형자산처분손실	-	9,967,979
4. 법인세등	341,778,650	103,195,984
5. 기타의대손상각비	-	11,000
6. 보험자산평가손실	44,305,300	-
7. 외환차손	-	5,187
8. 외화환산손실	41,662	-
9. 잡손실	144,574	40,794,676
VI. 순자산의 증가	4,262,015,046	4,445,146,325
VII.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4,898,912,533)	(4,541,257,085)
1. 운영비전출에 따른 제약의 해제	(4,898,912,533)	(4,541,257,085)
IV.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	(636,897,487)	(96,110,760)

과 목	제 13 (당) 기	제 12 (전) 기
제약이 없는 순자산변동		
I. 기초순자산	47,512,063,660	46,729,259,905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2,537,676,680	37,996,419,595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4,647,477,746	8,405,931,076
II. 기말순자산	50,928,391,151	47,512,063,660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7,436,589,213	42,537,676,680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164,892,704	4,647,477,746
III.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3,416,327,491	782,803,755
총 순자산 변동액		
I. 기초순자산	59,429,589,235	58,802,738,140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2,537,676,680	37,996,419,595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72,180,514	5,341,408,612
4. 이익잉여금	10,905,186,961	6,732,069,623
5. 회계변경의누적효과	(59,841,900)	-
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4,647,477,746	8,405,931,076
II. 기말순자산	62,209,019,239	59,489,431,135
1.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2. 기금	47,436,589,213	42,537,676,68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40,185,331	1,072,180,514
4. 이익잉여금	8,240,442,757	10,905,186,961
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164,892,704	4,647,477,746
III. 총 순자산의 변동	2,779,430,004	686,692,995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현황

(단위 : 원)

기금	2012 기부금	2012 사업비	기금 잔액
1%기금	797,403,682	498,214,361	7,225,431,834
100+10기금	120,000	-	1,134,366
3M기금	39,990,000	30,000,000	77,922,687
개미스폰서기금	100,218,099	85,306,320	13,389,573
건강한이세상기금	35,129,200	97,490,810	104,980,765
고려대학교KMBA기금	-	-	449,800
공익변호사기금	440,993,960	1,341,810,898	225,813,839
공익인프라1%기금	176,589,326	-	928,592,068
공익제보자기금	-	-	158,261
공익출판기금	2,344,000	-	11,569,386
곽현근 최병순추모기금	13,000,000	7,322,040	4,905,944
관세청키다리아저씨기금	-	7,400,000	399,895
교보생명희망장학기금	270,000	-	25,783,168
국제NGO연대기금	8,089,000	-	50,701,249
권경옥기금	-	-	9,760,523
기부문화도서관기금	31,957,760	26,603,404	99,636,540
기부문화연구소기금	56,929,620	94,791,800	140,152,812
길위의희망찾기기금	97,352,032	57,522,197	983,747,607
김군자할머니기금	35,684,632	31,684,930	359,397,055
김미경의파랑새기금	5,990,000	-	11,946,652
김영덕하제장학기금	3,235,000	15,200,000	34,907,448
김재윤사랑기금	13,900,000	-	24,843,102
김재중부메랑장학기금	12,925,400	-	26,420,005
김제동환상의짜궁기금	23,551,138	-	137,920,098
김현중장학기금	84,851,900	32,232,700	122,804,293
꿈꾸는나무기금	47,053,200	10,000,000	442,613,816
꿈꾸는대학로기금	9,407,880	-	8,749,810
꿈을담는틀기금	9,990,000	15,000,000	19,610,019
꿈틀기금	2,135,000	1,000,000	7,174,768
나누리병원행복나눔기금	4,930,000	20,000,000	12,761,926
나눔교육기금	121,070,960	88,774,794	157,643,746
나눔문화1%기금	37,616,810	17,530,613	98,133,737
나눔씨앗기금	-	-	2,601,511
나눔으로아름다운세상기금	78,982,160	-	574,637,644
나눔의복덕방기금	94,939,500	64,100,206	156,783,578
나눔천사를위한이창식기금	8,750,000	700,000	7,443,501
내일을위한기금	4,236,750	52,725,940	1,027,217,672
녹색꿈나무기금	7,786,000	-1,995,700 1)	14,673,102
다솜이작은술결실리기금	779,080,713	430,508,399	1,132,138,007
달팽이기금	57,530,880	24,000,000	124,658,355
당신의햇살기금	43,692,000	60,881,960	913,690,985

기금	2012 기부금	2012 사업비	기금 잔액
대덕테크노밸리기금	564,000	44,096,364	1,088,674,349
대안%기금	13,223,640	-	58,367,998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	88,464,790	- 69,586 2)	532,137,305
더불어숲기금	42,411,000	-	450,648,606
동우화인켄셀케어투게더기금	-	-	17,629,352
등불기금	2,900,000	-	377,587,824
렉서스푸드허기장학금	55,094,800	37,338,100	71,476,551
로템철길위희망기금	20,000,000	18,000,000	22,489,480
마이뉴스건강기금	23,980,000	-	157,534,756
마지막강의기금	-	-	221,775
막무가내대장부기금	3,959,600	5,000,000	19,574,034
머피컨텐츠반올림기금	5,810,000	-	8,153,592
메가스터디기금	815,000	-	6,855,301
멀치한상자기금	-	-	757,083
미래마당기금	48,000	2,500,000	6,296,642
미래세대%기금	539,024,908	87,668,642	1,579,982,248
미연의수호천사기금	6,373,280	24,087,915	131,646,747
박영미기금	900,000	-	1,608,835
박찬길기금	-	10,000,000	40,562,860
박홍이휘스퍼링호프기금	-	7,967,500	2,653,521
발리네집기금(미래세대)	2,040,000	-	7,507,196
발리네집기금(이른둥이)	600,000	2,800,000	650,476
변화의씨앗기금	2,357,400	13,731,150	61,683,147
빈곤%기금	495,864,461	200,138,270	1,784,395,377
빈천지혜기금	8,000	-	372,073
빛한줄기희망기금	10,953,600	44,877,022	193,606,219
사이버다임작은시작기금	6,829,668	5,700,000	6,218,936
샹타파랑새기금	5,869,829	1,000,000	5,765,313
샤트렌기금	-	1,000,000	189,010
서해안기름유출지역복원사업	25,200	-	657,998
선희샘물기금	20,050,000	-	261,071,654
성도자열삼터기금	120,000	20,000,000	93,646,381
성우재은이의행복나무기금	10,000,000	9,200,000	9,762,290
세피앙행복만들기기금	26,536,000	30,000,000	111,995,596
소금창고기금	23,076,000	-	87,601,960
소원우체통기금	55,908,800	57,738,223	377,808,167
소프트뱅크함께하는기쁨기금	6,270,000	6,726,458	63,946,745
술기금	182,157,109	64,185,693	2,147,073,822
송진우기금	31,153,700	25,000,000	262,342,645
송하원교수의책날개기금	5,620,000	5,800,000	5,322,936
신나는아이들기금	374,000	-	4,054,157
신성이엔지한길기금	53,345,000	11,317,100	160,247,152
심산활동기금	170,000	-	15,224,949
아나반서부택추모기금	360,000	4,990,071	22,207,745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	3,893,397	6,795,700	9,815,683
아름다운미소기금	170,000	-	3,957,241
아름다운보험(에프엔기금)	42,044,300	-	399,582,100
아름다운세상기금	363,458,464	927,139,367	11,677,843,648
아름다운영화인기금	4,720,400	5,000,000	62,965,007
아름드리기금	13,750,000	78,679,932	332,775,067
어머니의손길기금	200,000	33,000,000	71,398,480
엄홍길의길사랑	985,048	13,000,000	3,022,995

기금	2012 기부금	2012 사업비	기금 잔액
엔씨소프트희망네트워킹기금	36,000	50,000,000	30,088,878
연꽃기금	272,278	-	95,937,899
오필승코리아기금	1,540,000	50,000,000	51,018,758
우토로기금	441,000	338,911,920	3,985,320
유니베라나눔기금	24,425,332	20,111,000	5,685,821
유한킴벌리기금	135,000	-	735,859
율이기금	-	-	310,057
은빛겨자씨기금	155,339,890	205,479,846	475,545,273
익인기금	2,907,000	-	257,368,210
이병헌안나기금	360,000	1,000,000	1,706,980
이봉재박영인약속기금	-	12,179,000	8,045,588
이말플러스사랑플러스기금	20,000,000	10,000,000	21,182,052
이재은임유경미래약속기금	1,300,000	2,914,500	11,374,907
이채원의같이나눔기금	2,298,108	-	80,772,308
이철헤어커커기금(미래세대)	1,206,000	1,900,000	1,171,926
이한태기금	-	-	6,625
인큐베이팅1-AMC팩토링기금	3,660,000	3,295,420	372,557
재현,서현이의천사랑기금	-	3,000,000	816,953
정진권희망나눔기금	12,000,000	10,507,000	21,712,235
제이엔케이히터행복나무기금	5,000,000	9,000,000	5,124,750
주경아독기금	21,372,000	-	274,895,083
지구사회1%기금	24,540,500	-	107,353,566
지혜양기금	1,000,000	-	5,044,255
징검다리기금	95,956,000	84,746,113	835,859,559
차별1%기금	121,589,960	-	552,486,288
책날개를단아시아	13,882,300	13,762,900	16,554,095
최달석목사님을위한추모기금	364,000	-	5,954,315
춘원당100년생각기금	4,988,000	5,000,000	111,341,840
카메리아기금	-	-	9,863,029
큰사람기금	180,000	-	2,161,718
탁자기금	14,819,000	31,613,420	83,764,585
태평양제약홀로사는노인자복지기금	158,587,840	78,043,372	1,051,724,957
텐볼스토리수만회기금	-	1,810,400	12,390,619
투어익스프레스행복세상기금	240,000	-	727,051
티맥스함께나눔기금	8,750,000	8,457,850	30,653,382
풀무원푸른세상을여는기금	10,629,500	-	123,260,754
풀뿌리의힘기금_차별	120,000	50,000,000	40,645,442
피케이아이사랑기금	15,000,000	45,000,000	16,484,030
하나투어희망여행기금	3,465,500	3,000,000	3,519,372
하라기금	39,258,484	83,795,300	2,084,449,982
하인즈워드재단기금	-	-	52,948,059
한국교직원공제회사랑과희망	-	18,365,000	8,689,748
한국수출입은행계하는다문화기금	-	450,000	18,013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	6,656,000	18,163,927	36,345,346
행복한동행기금	36,812,460	19,785,119	246,954,905
행복한동지기금	8,009,800	21,874,531	19,479,392
행복한심표기금	22,172,640	45,279,724	229,805,396
현대모비스기금	180,000	34,000,000	158,357,328
현대자동차천사랑기금	3,201,000	5,099,000	23,041,154
호민기우봉기금	-	1,044,920	333,103,729
혼자만잘살면무슨재민겨기금	32,109,600	145,000,000	456,220,791
황복란평생의꿈장학기금	20,000	33,466,100	36,192,924

기금	2012 기부금	2012 사업비	기금 잔액
효리(孝利)기금	118,610,000	40,122,000	71,541,195
휴머스기금	20,046,000	2,500,000	234,984,933
희망의젓줄기	120,000	-	397,236
ADT캡스소원우체통기금	-	1,000,000	9,613
E-아름다운기금	3,828,000	-	29,514,675
EG기금	840,000	4,932,690	9,998,263
GS칼텍스아름다운팔씨기금	-	30,000,000	9,627,683
hbc사랑나눔기금	5,827,000	-	87,268,484
KTF기금	1,282,000	-	6,520,402
LG생활건강행복미소	141,769,970	82,949,419	189,258,826
LSG하늘사랑기금	10,800,000	9,000,000	827,498
SKT아름다운통화기금	10,419,480	-	281,287,600
SOS기금	218,946,233	5,358,808	327,715,869
UBS기금	-	-	1,511,102
현물 3)	165,537,657	167,217,657	5,115,000
예쿠우스기금		670,000	기금의전당
연금술사기금		58,553,488	기금의전당
국보디자인기금		기금의전당	
그랜데이불협회기금		기금의전당	
도움넷기금		기금의전당	
로레알코리아기금		기금의전당	
롯데리아기금		기금의전당	
박고테기금		기금의전당	
신한금융지주기금		기금의전당	
신한인후원기금		기금의전당	
아우디파트너기금		기금의전당	
엠코행복보급자리기금		기금의전당	
우리은행백두대간기금		기금의전당	
유향속의섬기금		기금의전당	
정인파트너스익품기금		기금의전당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		기금의전당	
한국그린포스팜프마중물기금		기금의전당	
한솔신기한나라기금		기금의전당	
해피빈기금		기금의전당	
희망공장기금		기금의전당	
KB국민은행희망기금		기금의전당	
KTWonderfulPartners기금		기금의전당	
KT풀뿌리단체정보화지원기금		기금의전당	

- 1) 녹색꿈나무기금의 사업비 (-)는 '2011 변화의 시나리오 환경활동가자녀교육비지원사업' 교육비 환급분입니다.
- 2)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의 사업비 (-)는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지원비 환급분입니다.
- 3) 사회적약자 지원영역 3개 현물지원사업을 포함해 다수의 현물기부와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일부 기금은 사업 종결에 따라, 2012년 기금 통합 및 소멸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고, 사회적 도움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가 튼튼히 뻗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아름다운재단 '2012 연차보고서'에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기부참여 방식과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차보고서 발행에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연차보고서를 두 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기부자님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간추려 담아 작은 책으로 발간하고, 사업의 다양한 형태와 속내를 맛보실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디지털 연차보고서를 내어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주신 22,482분의 기부자님, 아름다운재단을 믿고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기부금이 있었기에 10,340명과 614단체가 변화의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으로 함께 사는 사회, 생활 속 1%나눔으로 시작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님의 응원과 연대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그리고 더 먼 날에도 그 시작을 가슴에 새기고 달리겠습니다. 기부자님 덕분에 만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슴 뛰는 나눔의 현장을 촘촘히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을 더욱 눈여겨 보아주시시오.

나눔으로 세상을 빛내주시는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발행일 2013년 7월 8일
발행인 예종석
편집인 아름다운재단
기획 아름다운재단 간사들
주소 110-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
전화 02-766-1004
팩스 02-6930-4598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 디자인생선가게 (02-3673-2220)

